朝鮮日報
夕刊 八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崔[illegible]進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內外蒙國境兵力增大

【北平七日發同盟】張家口 烏得間의連絡에 從事하는 中國人이 言明한바에依하면 最近 庫倫方面으로부터 內外蒙境에 兵力이 顯著히 增大되여 飛行機도 集結되여잇다 一部의兵은 明確히 內蒙古內에 侵入하엿다

蘇蒙協定과日中兩國에의反響

駐中蘇聯大使에게 蘇蒙密約의 眞相을 質問

協定成立되엿스나詳細不明이라고言明回避

須磨總領事打診

國府當局은 密約說否認!

【南京七日發同盟】南京駐箚須磨總領事는 廿七日午後一時二十分蘇聯大使館에 南京駐箚蘇聯大使 보고모로프氏를 訪問하야 蘇蒙密約成立의 眞相에對하야 蘇聯側의 意向을 質問하얏다 右에對하야 보고모로프大使는 蘇聯邦과의 間에 一種의協定이 成立한模樣이나 詳細는 不明하다고 言明을回避하야 會談을終了하얏다

다음須磨總領事는 午後四時外交部에 張群部長을 訪問하야 蘇蒙密約에對한 中國側의 意向을 質問하얏다 이에對하야 張群部長은蘇聯邦과外蒙과의 間에 協定이 成立한 事實이 判明되엿슴으로 國民政府는 蘇聯政府에對하야 蘇蒙協定은民國十三年調印의 中俄協定違反으로 國民政府의 容認치못할것이라는 嚴重抗議를 提出하야 中國의 側態度를 表明하얏다 이에須磨總領事는 最近蘇中密約說이 잇는데이에對한 國民政府의 態度如何를 追及한데對하야 張群部長은 如斯한 事實은絕對로업다고 否定하얏다 이에 須磨總領事는 蘇蒙協定成立은 日本及滿洲國에 影響되는바가 甚大하야 蘇蒙兩國今後의 動向을 嚴重監視할 必要가잇는同時에 右協定에가장關係깁흔 中國이 如何한 態度를取할넌지 深甚한注意를 하고잇고 또日本은 中國과共同防衛의 意思가 잇슴을 表明하얏스든바 現事態는 正히 共同防衛에 當할時期에 到達한것을 痛感한다 貴國의 斷乎한 態度決定을希望한다 고 述하야 中國의 猛省을 促하고 會談을 終了하얏다 (寫眞은 보고모로프大使)

蘇蒙相互援助 議定書正文發表

【莫斯科八日午前一時發同盟】蘇聯政府는 七日夜半 타스通信社를 通하야 去三月十二日 蘇蒙兩國間에 成立된 相互援助議定書의 正文을 發表하엿다 議定書正文은 左와如하다

蘇聯社會主義共和國聯邦政府와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一九二一年 蒙古人民共和國의 領土가 赤軍의 援助下에 蘇聯領土에 侵入한 陸軍部隊와 關聯이잇는 自衛軍으로부터 解放된 以來 兩國間에 存在한不斷의 友交關係에準據하야極東에잇서平和對策을支持하고또兩國間에存在한友交關係를더욱促進補强하려하는 希望에基하야 一九三四年十一月二十七日以來 兩國間에 存續하는 軍事的攻擊의 脅威를 回避하고 또 阻止하기爲하야 一切의 手段에依하야 援助한다는 旨를規定하엿고 또 他의 第三國이 蘇聯邦及 蒙古人民共和國에對하야 攻擊을 加할境遇 相互援助協力을 賦與한다는旨를 規定한 紳士協定을 議定書의 形式으로 構成하기로 決定하엿고 또上述한 目的을爲하야 本議定書에調印하엿다

第一條 第三國으로부터 蘇聯邦及 蒙古人民共和國의 領土가 攻擊을受할脅威를 發生할境遇에는 蘇聯邦及 蒙古人民共和國은 發生한情勢에對하야 即時協力하야 武力으로相互領土의安全을 保護할 必要가잇다고思惟되는 一切의手段을講究함

第二條 蘇聯邦及 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兩締約國의一方에對하야 軍事的攻擊을 加할境遇에는 軍事的援助 其他一切의援助義務를 提供하기를 公約함

第三條 蘇聯邦及 蒙古人民共和國政府는 一九二五年蘇聯軍이 領土로부터撤收할時의事態와同樣으로 本條約第一條乃至 第二條에規定된 諸義務를 履行하기爲하야 [illegible] 부터撤收할것은 自明의것이라 고思惟함

第四條 本議定書는 露語와蒙古語로써 作成하야 互相正文으로 同一한效力을 認定하되議定書調印과同時에 效力을發하야 十個年間有效함

一九三六年三月十二日 우란바톨호라에서 此書作成함

蘇聯代表 타이로로프 印
蒙古人民共和小國民議會議長 아몰 印
同首相兼外相 겐덴 印

話題解說 『윗찰리』條約

에디오피아帝國은 그領土內에 存在한 多數의種族을 統合하여잇고 또 四圍에 英 佛 伊等 西歐列强의 植民地에 包圍되여잇는 關係上 에디오피아의歷史는 이러나는 內亂과 外侵의 勃發로 寧日이업섯다 一八七二年帝位에 오른 죠하네스王은 고잠 王國과 쇼아王國의 두王國을 合併하야 大帝國을 建設하게 되지 메네릭(쇼아王이엇든)王은 即時 에디오피아帝國에 對한 權利를主張하야 戰鬪를 드렷스나 마침내 失敗되여 一八七九年條約으로 죠하네스의 帝位를 承認하게되엿다

◇ 그後메네릭은 伊太利의 勢力을 미리 죠하네스에對한 陰謀를 企圖하야 마침내 죠하네스로 부터 帝位를 繼承하게되엿다 이와가치 메네릭이 伊太利의 힘을비려 帝位에 오르게되매 에國에對한 進出에 虎視眈眈하고잇든伊太利는 이機會에메네릭에對하야 伊太利의宗主權을 要求하야 가튼 條約을 맷게되엿스니 그것이 곳今日 에國에 對한 宗主權을 主張하게된 윗찰리 條約이다

◇ 그러나 條約締結當初에는 不得已 메네릭도 調印하엿스나 그後차첨 內政도 安靜되고 國內의 地位도 鞏固하게되매따라 메네릭은 同條約을廢棄하고 伊太利의 條約履行要求를 拒否하게되엿다 이것이 導火線이되야 마침내 伊太利는 大兵을奉하야 에디오피아를 대번에 併合할 意氣로 에國遠征을 이르키게되엿스니 그것이 곳아도와戰爭의 原因이엇다 이戰爭에서 伊太利軍은 慘敗를 當한것은 世人이널니 아는事實로 只今에와서 當時의條約을 云謂하게되는것은 實로 奇怪千萬이다

蘇蒙相互援助案 國府外交部不承認聲明

【南京七日發同盟】國民政府外交部는 七日蘇蒙相互援助協定에關하야 聲明書를發表하고 同協定에 對하야 蘇聯政府에 嚴重抗議를 提出하는 同時에 國民政府는 絕對로蘇蒙議定書를 承認치안는다는旨를 聲明하엿다 聲明內容은 左와如하다

蘇聯邦과 外蒙과의間에 相互援助協定이 調印되엿다는 報道에關하야 外交部當局은 事態를重視하고 各方面에亘하야 眞相을 調査中이든바 그結果 蘇聯邦은 外蒙과의間에 三月十二日 庫倫에서 어느程度의 議定書에調印한 事實이判明되엿다 右議定書의 內容은第三國이 蘇聯邦 又는 外蒙을攻擊할 境遇 雙方에서 相互防衛에當할旨를 規定한것으로 外蒙은 中國領土의 一部分이며 民國十三年 五月十一日에 調印한 中俄協定第五條中에 잇서서도 蘇聯政府는 外蒙이 中國의 一部分인事實을 承認하엿다 또 彭領土內에 잇서 中國의 主權을 尊重한다는旨를 明言하엿다 그러나 蘇聯政府는 現在 外蒙과의 議定書에 調印한것은 明白히 中國의 主權을 侵害하는것에 不外하고 民國十三年五月의 中俄協定에 違反된다 따라 外交部當局은 이미 蘇聯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고 國民政府는 斷然 右議定書를承認할수업다는것을茲에聲明하는바이다 (寫眞은 張氏)

近代武器를總動員 伊大軍長驅南下

大擧하야에國首都아디스아베바를脅威!

에國、聯盟에最後的으로提訴

【쥬네브七日發同盟】伊太利는最近 東阿戰線에잇서서 雨期의 切迫과함께 空軍其他 一切의 近代武器를 總動員하야 猛襲을 開始하게되엿슴으로 에디오피아外相헤루이氏는 十三人委員會開會를 압두고 七日午後 聯盟事務總長압놀氏에 對하야 에디오피아政府의 最後的提訴覺書를 通達하야 거듭 伊太利軍의 暴狀을 指摘하는同時에 聯盟의 斷乎한 處置를 要望하엿다 에디오피아政府의 提訴內容은左와如하다

伊太利政府는 聯盟規約第十六條에 斷乎한 制裁規定이 現存함에도 不拘하고 손쉬웁게 何等 强力한 防備手段이업는 弱少國에對하야 侵略行爲를 實行하고잇다 伊太利空軍은 防備업는都市를爆擊하고 毒瓦斯彈까지使用하고잇다 그리고 伊太利政府는 武力으로써 에디오피아를 屈服식히고 既定事實로써 聯盟을 制縛하려한다 伊太利의 侵略戰爭結果로 危殆에陷할것은 오직 에디오피아의 獨立뿐이아닌가 聯盟規約에規定된集團的 安全保障이 現存함에도不拘하고 伊太利는 事實로 侵略을敢行하고잇는事實은 全世界弱少國의 共同脅威이다 그리고 伊太利가 平和를 放棄하고 安全保障과聯盟規約 相互援助義務를 [illegible] 乃至破綻함과 가튼것은 [illegible]的 安全保障의 破綻이다 에디오피아政府는 聯盟에 [illegible] 에디오피아國이 [illegible] 實에關하야 以上 放任할수업[illegible] 援助의 손을 빼치기를希望하면서 玆에 最後的提訴를 行하는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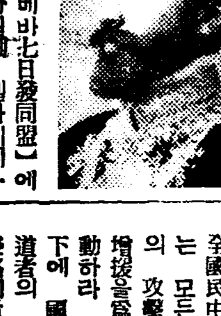
【羅馬七日發同盟】곤달占領後의 伊軍主力은 長驅南下하야 인제는大擧하야 首都아디스아베바를 脅威하려는事態에 이르자 伊政府의 態度는 顯著히 硬化된 模樣으로 七日 伊政府當局은 左와如히 非公式으로 言明하엿다

一、에軍은 伊軍精銳의 猛襲으로 全然潰滅狀態에 陷하얏다 따라서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權威는 軍의 敗退와함께 失墜될수밧게업다 和平交涉에 在한에國의 立場은 從來보담 軟化될수밧게업고 伊國의 에디오피아保護下의 主張貫徹도 今日에는 決코 困難치안타

一、伊國政府는 에國에在한 英佛獨三國의 既得權益을 充分히 尊重할것을 자조 中外에 聲明한바이오 다시 또 最近 對英 對埃折衝에서 나일原流의 埃及의 權益은 充分保護할 旨 公約하얏다

一、그러나 事態가 今日과如히 進展한以上 伊太利로서는 五人委員會의 和協案과가튼것을 承認하는것은 全然 不可能한 [illegible] 昨年末 問題가된 [illegible]案이 이機會에 復

『에』國皇帝 全國總動員發令



【아디스·아베바七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는 七日 [illegible] 全國總動員令을 發하엿다 總動員令은 左와如하다

全國民中軍事服務에 견될수잇는 모든 男子는 敵國伊太利의 攻擊에 抗拒中의 我軍의 增援을爲하야 直時前線에 出動하라 我等은 各國의 援助下에 國際聯盟의 決議로써 非道者의 烙印을 찍은 伊太利의 侵略에對하야 斷乎擧國一致로 祖國을 防衛할것이다 (寫眞은 에國皇帝)

十三人委員會 八日에遂開會

【쥬네브八日發同盟】十三人委員會는 八日午前十一時 聯盟事務局內事務總長室에서開會 議長마다리아가氏司會下에 伊에兩國紛爭處理案을 檢討할 豫定이엇는바 國際關係의 微妙함에 鑑하야 議事의 內容은 極秘에 附할것으로 觀測된다

匈牙利首相 野黨首領과決鬪

【부다페스트七日發同盟】匈牙利首相 꾀뫼스將軍은 七日午前十時 부다페스트에서 反政府黨獨立農民黨首領 티볼·에할트氏의 要求에依하야 拳銃으로써 決鬪를 行하엿스나 雙方에 負傷은업섯다 決鬪事件은 下院 國防委員會 席上에서 꾀뫼스將軍이行한 聲明이 에할트氏를 誹謗하엿다는데서 發端된것이다

軍司令官師團長會議 八日遂開會

肅軍決意로注目集中

【東京電話電通】未曾有의 不祥事件의 뒤를 니여 全軍緊張裡에 召集된 軍司令官 師團長會議는 各方面의 異常한 注目裡에 八日午前九時부터 陸軍省所管事項을 議題로 第一日을陸軍省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엿다 肅軍決意를 胸中에 깁히 秘藏한 寺內陸相은 午後八時半 官邸를나와 小松秘書官을 帶同하고本省에 登廳하야大臣室에入하는即時로 기다리엇든 梅津次官과함께 約十數分에亘하야協議하자 小磯朝鮮柳川臺灣兩軍司令官、香月近衛、河村第一以下各師團長、今村關東軍參謀副長、永見北中駐屯軍參謀長以下가 續續參集하야 控室에서 休憩하고잇다 午前九時 各 軍司令官、師團長은 一齊히 大臣室에서 寺內陸相에게 인사를述하고 即時 第一會議室會場에入하엿다 陸軍省側에서는 寺內陸相、梅津次官以下 各局長出席 場外에는 憲兵警戒도 업고極히 平靜하엿다 會議에서는 爲先 陸相으로부터 軍規振肅에關한 決然한訓示가 約三十分間에 亘하야잇슨後 梅津次官으로부터 陸軍省所管事項에關한 口演이잇슨다음 一同은 陸相官邸에서 午餐을함께하고 午後一時부터 懇談會에入하엿는데 軍司令官師團長으로부터 軍狀에關하야 詳細報告가잇고 陸相、次官으로부터 中央의方針을 說明한後 種種意見을 交換하고 午後四時第一日을終了하엿다

『히』總統又復 라인에飛行隊進出

【伯林七日發同盟】히틀러總統의 命令으로 獨逸空軍中隊는 六日 라인란드에 進出하야 뒤셀돌프市에 入하엿다 同飛行隊의 라인進入은 히틀러總統으로부터 四月一日 英國政府에 通達된回答中에 『佛國政府가 國境地帶에 增兵치안는以上 獨逸政府도 라인에增兵치안키를 誓約한다』는旨를 明言한事實에 鑑하야 各方面으로부터注目되여잇다

三笠宮殿下 二十三日夕御入京

陸軍士官學校에 御在學中의 三笠宮崇仁親王殿下께옵서는 同校朝滿戰跡視察團과 함께 來二十三日朝釜山御上陸 同日、臨時列車로 御入京하실터로 總督府及軍司令部其他關係方面에서는 御警戒、御案內其他御送迎準備를 하고잇다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不景氣의退治는 高橋氏의첫任務

(三) 徐椿

井上財政政策은 그時代가 要求하는 任務를 다하엿다。即、國家財政上에 잇서서는 官吏減俸 그他에 依하야 歐洲大戰以來로 極度로 膨脹되어던 歲出을 大히 緊縮하야 收支가 거이 맛도록 하엿고、商工經營에 잇서서는 産業合理化의 誘導에 依하야 商品의 生産原價切下運動이 奏効하야 優良廉價의工業力을 培養하엿다。

그러나 政府、民間을 通한 이大大的緊縮運動의 結果로 中小商工業者中에서 倒産者가 續出하고、失業者激增과 農産物暴落에 依하야 國民生活은 去益困難의 度를 加할뿐만아니라、巨額의 金流出에 依하야 當時金本位制를 基底로 햇든 日本의 貨幣制度는 基礎動搖의 危機에 빠젓고、또한 財政收入도 激減을 招致한故로 昭和六年末頃에 와서는 到底히 井上氏의 緊縮政策을 그대로 維持할수가 업는 難境에 빠진것이엇다。

게다가 昭和六年九月十八日의 滿洲事變의 勃發은 必然的으로 國家歲出을 激增시킬 性質의 것이엇다。

以上은 國內事情이어니와 他方、國際事情의 變遷을 본다면 昭和六年九月二十日의 英國의 金本位停止는 또한 必然的으로 日本에 緊密한 影響을 주어 日本으로하여금 金本位制(即、金解禁政策)를 維持하기가 不可能하게 만든것이다。井上氏의 緊縮政策은 金解禁政策을 基礎條件으로 樹立되엿든것인故로 基礎에 對한 破綻은 그基礎우에 선 政策의 破綻을 不可避的으로 誘致할수밧게 업는것이엇다。

以上은 內的事情、外的事情을 通하야 井上政策은 그以上 더 維持할수가 업시 되엿다는 말이다。말하면 봄이 그以上 더 繼續하면 풀은 자랄수가 업고、나무는 繁茂할수가 업다。井上財政政策이 그以上 더 繼續하면 日本의 財政經濟는 窒息할수밧게 업섯든것이엇다。四時之序에 成功者去、이때가 即、井上財政은 물러 안고、高橋財政이 대신 드러서야 될때이엇다。

如斯히 時代變遷의 必然的要求에 依하야 대신 드러 안즌것이 即、高橋是淸氏요、그의 政策이 即、高橋財政政策이라는것이엇다。

井上氏는 財政緊縮에 成功햇고、産業合理化에 依한 工業力養成에 成功햇스나、그가 그方法에 依하야 誘致하려든 國民生活安定과 國內景氣振作에는 크게 失敗햇다。何故오하면 그當時의 內外의 事情은 그러한 方法에 依하야 그러한 結果를 誘致하기가 不可能하게 되엿든까닭이다。

何如間、井上氏挂冠當時의 事情이 이러햇든까닭으로 그 대신 선 高橋藏相의 첫재 任務는 不景氣退治에 依한 國民生活安定의 一事이엇든것이다。

不景氣退治에는 物價引上策을 쓸수 밧게업는데、物價를 引上하는데는 人爲的通貨膨脹을 圖할수밧게 업고、人爲的通貨膨脹을 圖하는데는 金의 輸出을 禁止하야 金本位制로부터 아조 離脫하야 金과通貨(紙幣)와의 連結關係를 아조 끈어버리지안흐면 안되는것이다。이러한 必要에 依하야 高橋藏相은 犬養內閣親任式 即日(昭和六年十二月十三日日曜)로 金輸出을 再禁止해 버린것이다。

金과 通貨(紙幣)와의 連結關係를 斷絕한다는말은 金準備업시도 紙幣를 어느程度까지 發行할수 잇게 만든다는 뜻이다。그런데 이一事가 完全한 金本位制를 維持하고 잇스면서는 不可能한 일이다。그러니까 高橋藏相의 物價政策을 쓰는데는 人爲的通貨膨脹政策이 必要하고、人爲的通貨膨脹政策을 쓰는데는 金本位制離脫이 必要하다는것이다。

그리고 當時、英國金本位停止의 影響으로 보아도 日本의 金輸出再禁止는 不可避인것은 既述로 暫解한바와 가트다。(繼續)

協和外交再檢討

對蘇中政策과太平洋政策等에 有田外相新方針練磨

【東京電話電通】有田外相은 廣田內閣의 主張인 自主積極外交方針을 確立하기 爲하야 目下 그具體化를 急히하고 잇는데 新方針에 잇서서는 반드시 從來의 外交政策을 踏襲하지 안코 廣田協和外交에 飜하야 全面的 再檢討를 加하기로되엿다 即 廣田前外相의 協和外交는 聯盟脫退로 惡化된 國際空氣의 緩和를 主眼으로 한것인데 이미그 使命은 完了되엿다고 보게되엿슴으로 有田外相은 新內閣의 組成及 二·二六事件後의 內外情勢의 變化를 動機로 從來의 外交方針에 再檢討를 加하야 積極的 建設工作을 決意하게 된 것이다 이때문에 連日에亘하야 重光次官以上 各局部長을 官邸에招致하고 從來의 外交交涉의 經緯及今後의 見解를聽取하야 徐徐히 對策을考究하고잇는데 今月中旬까지에 大體의 成案을 어더 對蘇中政策 太平洋政策等 關係事項도 協議를 遂하야 新政策을 確立하고 五月特別議會劈頭外交方針演說에 잇서 그方針을 闡明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有田外相으로서는 對蘇中政策을 國策의 中樞로 하고 또 日滿中三國의 緊密한 提携에 依하야 東亞의 政治的經濟的 블럭 結成에 邁進하는 一方 日滿蘇三國關係를 好轉케하야 右블럭結成에 側面的으로 支援하고 滿洲國의 獨立을 第一步로 하는 日本의 大陸政策의 完成에 邁進하리라고 觀測된다 一方 太平洋을 中心으로 한 軍擴競爭의 發生은 各國에 不必要한 刺激과 經濟的 負擔을 加重하게되므로 英米와도서로 提携하야 平和關係의 維持를 圖하리라고 解釋된다 그리고 此等政策實施를爲하야 多年沈滯되엿든 人事를 刷新하야 外交陣容을 一新하고 新政策遂行에 努力할터인데 廣田協和外交를 一擲하고 建設工作에 進出하려하는 有田外相의 新方策은 各方面의 注意를 끌고잇다

八面鋒

◇호어前外相의 更迭當時 軟弱은 自由黨이 攻擊。

◇이든外交를 軟弱하다고 勞働黨이 이미約束한것、그러나 保守黨이 支持하는때까지는 安全。

◇病者의 熱度도 一昇하면 一降함이 自然의 理法。

◇强弱과 屈伸을 生命으로삼는 國際外交에잇서서 强硬의 一道만을 許할수잇슬가。

◇伊太利는 에디오피아를 아조 屬國으로 만들라하고。

◇에디오피아는 最後의 一人까지 決戰하겟다하고。

◇鷸蚌이 싸우나 利보라하는漁父조차업스니 結局은 弱肉强食의 世인가

不老長壽 强精固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洞 平和堂 一劑十円

好職業
不景氣의失敗에 本業副業으로 自宅에서 男女老少遠近間無關係로 할수잇는職業 說明書及見本無代進呈
大阪天王寺區堂ヶ芝町 福榮本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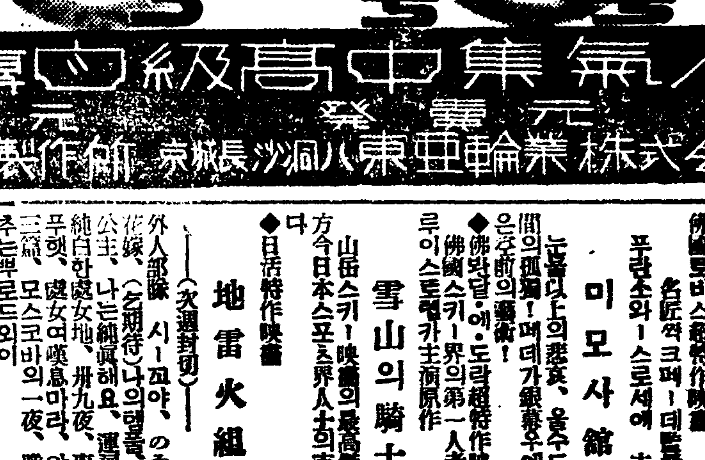
廣告
本人이四月四日에黑角褶圓形中邦이라印章을紛失하엿사기 茲에廣告홈
昭和十一年四月七日 京城昌信町六三ノ一五 申邦鉉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旗 カタログ進呈
幟幕 宣傳旗 會旗 優勝旗 校旗 萬國旗 國旗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瑞西直輸入系優良山羊養成 京城東小門外城北里
電話光化門(3)三〇五三番 振替口座京城三六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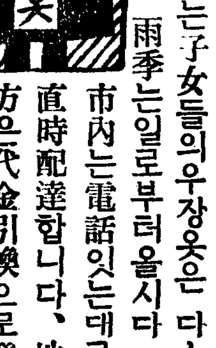
朝鮮서하나뿐인 少年雜誌 新兒童
內容小說童話童謠漫畫等자미잇고 유익한지가단十錢送料는一錢이오 支社長急募 누구던지資本업시곳 만흔돈버을수잇다 二錢切手五枚보내면見本과案內書보낸다
京城黃金町二 太平生命ビル 新兒童社

耐久力絕大 責任保證
王冠メリック号 フロリック号 ウイス号
超特級新發賣
人氣集中高級自轉車
元製造 東京 藤井製作所
元發賣 京城長沙洞八 東亞自轉車輪業株式會社



미모사館
四月九日封切(五日間) 毎日三回(午前十時五〇分 午後一時半、六時半)
◆特選號久!二大作發表◆
佛國로비스超特作映畫 名匠쎄크페데디르作品 푸랑소와ㅣ 스로세에 主演
눈물以上의悲哀、울수도업는人間의孤獨! 메데가銀幕우에샤려노은藝術의至高!
◆佛國도라超特作映畫 佛國스키ㅣ界의第一人者 루이스트렌카主演原作
雪山의騎士
山岳스키ㅣ映畫의最高傑作으로 方今日本스포ㅊ界人士의支持가크다
◆日活特作映畫
地雷火組
(次週封切) 外人部隊
朝鮮日報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
團成社

雨衣 우장옷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 다ㅡ준비되엿습니가 雨季는일로부터올시다
雨衣雨覆シート防水布一切은 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 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市內는電話잇는대로直時配達합니다、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京城光熙門外 登錄商標 朝鮮防水布製造所
電話本局五一三〇 振替京城七一二八番
【定價表進呈】

장갑 製造家를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小資本으로서京鄉을勿論하고婦女子들이容易하게製造、製法은二三日의講習으로充分、製品은一手로引受、綿絲는供給하여드림으로써 地에서라도不便이업시取引할수잇슴、目下有利한條件으로서製造者急募中 詳細는通知次第說明書無料進呈
京城府黃金町五丁目 朝日軍手京城支店 電話本局(2)二七五三番
本店·大阪·支店·東京 平壤府[illegible] 朝日軍手營業所

金 銀 福 白金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三一四一番 受信略號(へイセウシイフク)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社員採用 (藥劑師도歡迎)
一、資格 專門學校卒業又는同等以上의學力이有한者
一、年齡其他 二十五歲以上卅五歲未滿의身體健康한男子
一、採用方法 考試(日時는追後通知함)
一、待遇 學力及經驗에따라相當히待遇함
右記條件으로特히日本語에能通하며內外勤에自信잇는者若干名을求하오니希望者는履歷書에寫眞(脫帽半身)及行政官廳(府邑面警察署等)의身分證明을添付하야四月廿日까지本所에提出할事(但有力者紹介의書面及電話等은謝絕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七番地 金剛製藥所

普校增設財源은 增稅以外無方途

有產階級에 累進率的賦課와 月謝金增額도 考慮

경성부제이부 공화부회에서는재원조사문제에 관하야 팔일오후 두시부터 부청의원회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키로되엿는데 토의될내용은 현재경성부 제이교육부의 재원으로서는 시내각보통학교에 몰려오는 다수지원아동을 도저히 수용할길이 업슴으로 어느방면으로든지 재원을어떠 이궁정을타개할 방책을강구치안흐면 안될 긴급한 정세에 잇다 금년의 상황으로 보아도 시내각보통학교의 수용인원 오천사백여명에 대하야 지원자는 일만여명으로 정원의배나 되엿는데 여기에서 학교에 들지못하고 떨러저 나간 약 오천명중에서 시내각사립보통학교의일학년수용인원 이천칠백명을 제해내인다해도 이천수백명이 아주 학교에 들어갈수 업시되고마는 계산이 된다 그러나 실상은 사립보통학교에 지원하는 아동중에서 공립보통학교에 지원하지 안코 직접 사립학교로 지원하는수도만흠으로 공사립간에 학교문에들어서 보지도 못하는수는 이보다 훨신더 만흘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학령아동의 범람을 과연어떠케 구하느냐하는것은 학교를 더증설하고 또학급을 더늘리는것박게업는데 그러자면 현재의 제이부특별경제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수업는 상태이어서 그만큼 세입을 늘리는 방도를 내이지안흘수업는터이어서 금번간담회에서도 세입의 증가를 어떠방면에구하느냐하는것이 토의요점이될것인데 그방법에는 달리별도리가업슴으로

첫재는 제이부특별경제의 주요재원인 호별세부과세(戶別稅賦課稅)를 늘리는것

둘재는 이상과가튼 호별세특별부과세의 증액에 의한일반부민의 부담증가에 따라국고(國庫)또는 도비(道費)보조의 증액을 요구할것

셋재는 금년부터 일반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이십전식 내리원확십전으로 하엿든 수업료(授業料)를다시 어느정도까지 올리는것은 어떨까 하는것이토의의요건이될 모양이다 그중에서도 세금을 올린다는것은 일반부담을과중케하는것이라하여 세상의론평도 만흘것이나 현재부민의 재산정도로본다면 빈부차이는극히 현격한터임으로 재산가에게 그정도에 따라 부담을 증대히도록 부과루진률(賦課累進率)을 놉히할은 사회정책적견지으로보아도 극히당연한 일이어서 부당국자며 부회원간에도 이점에는 상당히 열심한태도를 가지고잇슴으로 명년중에는 어차피증세를 하게될모양이다 그러케 되다면 국고와도비보조도업지못할것인데 그다음으로 수업료의 증액은 당초에 총독부의 방침도잇슴으로 어떠케될것인지 예측할수업스나 재원으로서는역시 신중한고려가 업지못할모양이다 그런데 학무당국이나 부회원간에는 명년에 적어도 네학교나 다섯학교는 새로 세우지안흐면 안되리라는생각을 가지고 재원을 조사중이다

補缺生收容코저 學級增設斷行?

經費는志願者의寄附로充當 이것도三對一의競爭

시내 각보통학교의 이학년이상 상황으로보면 수용적은 각학년을통하여 불과이백칠십명박게못되는데 지원자는 칠백여명으로 그전부를 수용할수 업슴은물론 그고사도 곤난할모양인데 이에 대하야 부학무당국과 제이부부회원간에는 될수잇스면 보결지원아동을위하여 학급이라도 증설하엿스면 어떠켓느냐 하는것을 연구하여왓다 그러나 학급을 증설한다면 두세학급을 수용할교실은 잇다해도 원체경비가나올곳이업스니 어떠케할수가업는형편이어서 그방도를 연구한바 이번새로지원한 보결아동은 대개지방에서 새로이주해온 것들이고 또가세도모다 상당하며 교제도넓버서 누구누구하는 사람들의 소개로서 입학운동을하게되는것이 태반인데 이러케된다면 그들은 새로경성부에 이사해온만큼 그동안교육비의 부담하나도 하지안코 세력잇는사람들의소개로 쉽게입학케 될것이니 이것은 부당한계로나 기타 사정으로보아 교육비를 부담해온 종래경성부의 거주자보다도 월등한리익을 보게되여 대단히 불합리한결과를 보게될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 지원하는 보결아동에 대해서는 일본내지인측 소화교의례도 잇슴으로 특별과부형식 으로 경상비 한사람압 이십원내지 삼십원정도의 과부를 바드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유력하다 그래서 팔일오후에 열리는 제이부교육부회간담회에 의견을제출할모양이다 대략은 부당국자며 부회원들도이의가업는모양으로 그대로 실현될모양인데 현재 보결지원아동을 전부입학식힐수는업스나 그중지원자가 만흔사학년과 오학년에 한학급식을 더늘릴모양이고 그여는 각보통학교에 약간명식 배당을하여 시험을치르게 할터이나 형편에의하면 다소의 무리가 잇더래도 한학급쯤은더 늘리게될듯도 십다고한다

都市中心建築沙汰 一年間萬六千戶

前年度보다四千餘戶激增 西北地方新興都市가刮目

작년중에 전조선각도회지에서새로지은 집은얼마나되는가 경무국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십년중에 전조선의 부와 읍의 도회지에 새로건축한건물 즉개와집 벽돌집 철근(鐵筋)콩크리트집등을합하야 총수일만륙천이백칠십팔동의다수에달하야 전년의 일만이천이백사십팔호에 비하면 실로사천삼십호의 격증을보이어 조선의도시 팽창상(膨脹相)을알수잇는동시에 인구가 해마다도회지로 집중하는것을 짐작할수잇다 중요도시별로보면 경성의이천팔백이호가 가장만코 그다음은 평양(平壤)의 일천오백십팔호 신의주(新義州)의 구백팔십팔호해주(海州)의 륙백구십칠호 등의순서다 다시중요대도시의 구십량년간신건축호수를 표시하여보면・다음과갓다

	十年	九年
京城	二八〇二戶	二八四六戶
忠州	三三七	一〇五
光州	三一一	一四七
大邱	五三〇	三六四
釜山	六〇〇	四八八
海州	六九七	三〇〇
兼二浦	四〇六	一八一
沙里院	二五三	一四三
平壤	一八五九	一五〇八
鎭南浦	四五〇	二四五
新義州	九八八	二六〇
宣川	一七〇	二一
咸興	四五六	三三三
興南	三九五	五五
清津	六五八	一八〇
城津	三〇八	一六七
會寧	五三六	七〇

전긔와가티 최근에 비약적발전을하는 신흥도시의 가옥신축이 격증하엿는데 특히 신의주、평양、해주、겸이포、청진、성진、흥남등 서북도시의 신축가옥이 격증한것은 최근 이지방이교통 산업기타문화시설이 급작히 발흥한관계로 인구의 증가에따라 도시로서의 큰발전을 하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安城拳銃窃取犯 議政府에서逮捕

背後엔重大人物潛在?

지난삼월삼십일일 새벽에 경긔도 안성(安城)정전(町田)이라는 사람의 집에드러가서 권총한자루와 탄환 륙십여발을 훔처간범인두명중 공범한명은 그뒤곳잡혓스나 실물을 가지고 도망한 김의중(金義仲)(二六)은 그동안 각처로 수사하든중 칠일저녁일곱시반쯤에 양주군 의정부(楊州郡議政府)에 잇는 그의아주머니되는 차석환(車錫桓)의집에 숨어잇는것을안성경찰서원이 붓잡엇다 동시에그가 가지고잇든 권총과 탄환도 압수하엿는데 탄환수발은 시험으로써 버렷다한다 그가 권총을 도적한리면에는 모중대사건의관계자가그의 뒤에서 조종한듯하므로방금 엄중히 취조하는중이라 한다

死刑被告嚴舜奉 十七日에覆審公判

소화구년십일월오순에 상해(上海)에서 유길(有吉)대사를 저격할것을 꾀하고 동십년사월십칠일에 상해조선인 거류민회장 리용로(李容魯)를 쏘아죽인혐의로 작년삼월상해일본 령사관경찰에게 체포되야 경성지방법원공판으로부터 치안유지법위반피고 엄순봉(嚴舜奉)과 리규호(李圭虎)량명은 지난여월삼일 산하(山下)재판장으로부터 각각사형과십삼년징역의판결을바덧스나 엄순봉은 사형판결에 불복공소하고 리규호는 검사가 공소하야 이래사건은 경성복심법원에 너머가잇든바 드듸여 오는 십칠일 지전(池田)재판장심리밋헤 경성복심법원에서 제일회복심공판이 열리기로 되엿다

不正한藥房店員

전북 임실군 오천면선천리 (全北任實郡烏川面仙川里) 사백이십팔번지에사는 송원봉(宋元奉)(二三)은 작년섯달에 시내본정(本町)사정목륙십오번지천랑약국(川浪藥局)에약파는 사람으로 들어가잇든것을 긔회로 금년정월스무날부터 사월륙일까지 약판돈 삼백여원을 횡령하여가지고 시침을떼떼고 시내리화정(梨花町) 이백십사번지의이호에 숨어잇든것을탐지한 동대문서원에게 체포되여 지금엄중한 취조를밧고 잇다고한다

松林中에서縊死

경기도고양군 벽제면 관산리 (高陽郡碧蹄面官山里)권오천 (權五千)(二六)의양아들 리강진(李康振)(二〇)은 륙일오후 령시쯤에동리 솔밧속에서 소나무가지에색기로서 목을매고 죽어버렷다고 의 죽은원인은 자세히 알수업스나 동리사람들의 말을드러보면 다소 정신에이상이 잇는듯 하다한다

初等校設立基金으로 卅二萬圓을義捐

閔大植氏의母堂安遺豊氏特志 徽文義塾財團에

자작민영휘(閔泳徽)씨가 지난일월 별세하엿슬때에 그의유언에 따라 그유족들은 현금 십삼만원을 재단법인 휘문의숙(徽文義塾)에 기부한일이 잇서서 세상의 칭찬이 만핫는데 최근에는 다시 민대식(閔大植)씨의어머니 안유풍(安遺豊)씨가 특히 현재부족을 늣겨해마다 입학난으로 수난을 당하고잇는 초등교원부족을 염려하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설립긔금으로 삼십이만원을 휘문학교재단(財團)에 기부하엿다한다 그래서 그재단당국자들은 초등학교 설립경영에 관한 구체적 방책을 연구하야 그고마운뜻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진행할터이라한다

蕩兒가飮毒

팔일오전 여섯시경에 시내신영정(新營町)일백이번지 제지공장(製紙工場)직공 김윤경(金允景)(四八)의 의아들 김귀성(金貴成)(二〇)이가 다량의 쥐약을먹고신음하고잇는것을 그의아버지가발견하고 즉시시내 의전병원(醫專病院)에 데려가서 응급치료를 바든결과 겨우생명은 붓잡엇는데 자살을도모한 원인이즉 전긔김귀성이가 업는돈을 다가저다가 하로밤새도록 계집과술에 빠젓다가 팔일새벽 네시경에야 집에돌아왓슴으로 그의아버지가 이를 몹시꾸지젓더니 그것을비관하고 그와가티 음독한것이라고한다

泗川產業組合 幹部間에內訌

【泗川支局電話】 사천 산업조합(泗川產業組合)은 지금으로 부터 석달전에 설치된것으로 그동안 조흔성적을 보혀나려오든중 최근 그조합장 최(崔)씨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하자 또달은간부들도 련달어 사직해서 분규를 이르키고잇다. 그 내용은 잘알수업스나 그조합장과 리사(理事)와사이의 의견충돌로 그 기관이니만치 일반은 이사태를 주목하고 잇는동시 이삼일안에 사건내막이 드러날것으로 보인다.

跳梁하는痘魔患

一月以來發生患者七百餘名 平北地方이最尤甚

금년일월부터 지난사일까지의전조선두창(痘瘡)발생상태를 경무국위생과에서 조사한바에의하면 발생환자는 칠백구십륙명이고그중사망자는 이백십삼명이다 그리하야 현재환자는 이백이십팔명인바 지난주일에 발생한환자는 칠십삼명으로 특히 평북지방에 발생자가 격증하야 지난일주일에 삼십칠명의 다수가 발병하엿다

原籍모르는者 誘拐에는天才

東大門署에嚴調中

원적은 전라남도인줄만알고 그밧게는 아무것도모르는 최한식(崔漢植)(二七)이란 숭거운자가 사람속이는데는 천재라 지난나흘날 오후세시쯤되여 시내 청진정(淸進町)백사십팔번지 류귀철(柳基喆)의맛딸 순이(順伊)(七)를 달큼한 거짓말로 꾀여내여 시내 룡두정(龍頭町)백사십륙번지 음식점안이문(安二文)의집에 데리고가서는 자긔누의동생이라고속여 두달에삼십원으로 계약하고 순이에게는 이돈을더의부모에게 갓다준다고하고는 그냥 잘나먹으랴한사실을 사흘후에안모는 대경실색하야 소관동대문서에 그를다리고와슴으로 그서에서는 지금범인을 엄중취조중이라고한다

可憎한就職詐欺

칠일밤 시내종로서 사법계에 시내리화정(梨花町)구번지 전과이범 권희직(權熙稙)(三二)이라는 사긔범이 체포되여 방금엄중한 취조를밧고잇는중인데 그는 지난이일오전 열한시경에 시내파코다공원에서 황해도 서흥군내덕면장포리(瑞興郡內德面長浦里)서 취직하려상경한 장팔락(張□□)(一七)이라는 소년에게 자긔는 룡산 중앙철도의 직공이라고하고 그곳에 취직을식혀준다고하야 이원사십전을 사긔해먹은것을 비롯하야 시내각처에서 요지음 불비한 서울로올라온 시골청소년에게 취직사긔를하엿다고한다

"通告式"新案棄兒

"人業"이잇스니가저가라고!

팔일오전열시 삼십분쯤하야황금정(黃金町)오정목 이백일번지민종구(閔鍾九)의 집 대문간옆두다리며 녀자의 목소리로여기에 『인업』(人業)이잇스니 집안으로 가저가시요하고 소리질음으로집안사람이 나가보니 나은지약사개월가량되는귀여운 계집아히를 두고간사람이잇서곳 본정서(本町署)에 고발하엿다는데 그어린 아히는 이웃집에서 양육키로하엿다는데 버린사람은 아즉 모르겟다고한다

天氣予報

概況 七五三미리의低氣壓은 上海北西에잇서 지금東北東으로進行하고잇스며 高氣壓은北滿洲로부터 日本海를거처 日本內地에 퍼지고잇다、北滿洲는 개이고 南滿洲와北部朝鮮及東海岸은 흐려잇스며 南部朝鮮과西日本은 風雨가 相當히세다、

豫報 今夕은 北東風이잇고 비가오며 明日은 北西風이불어 비가내리나 나종에는 개인다、그리고 京畿道全區도同一하다

昨日最高 一九、四
今朝最低 五、八
今日正午 七、七

運動競技

全朝鮮풀마라손 參加規定

廿六日正午에擧行

朝鮮體育會主催 第四回全朝鮮풀마라손大會는 來廿六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을 出發歸着點으로擧行할터인데 大會參加規定은 다음과갓다

▲走路=京城運動場으로부터京水街途에이르는『마라손』公認廿六哩四分之一『코ー스』

▲申請期日=四月廿四日午後六時까지 參加金五十錢을添付하야 申請할것

▲申請場所=京城鍾路一丁目朝鮮體育會

『備考』競技當日午前中에 健康診斷을行함

早大럭비再勝

滿洲遠征中의 早大럭비軍은 五日午後二時부터 奉天實業運動場에서 全滿軍과 第二回戰을 擧行한바 結局三十八對九로 早大再勝하엿다

早大 38 (21 17 … 3 6) 9 全滿

對京商럭비道商勝

春季럭비ー그第十九日ー京商對道商戰은 七日 午後五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道商先蹴으로開始된바 結局八對六으로 道商勝

道商 8 (0 … 3 / 8 … 3) 6 京商

女子百碼背泳新記錄

【시카고發電通】全米室內水上競技選手權大會는 四日當地에서擧行한바 世界女子背泳選手『에리나ー홈』孃은 百碼背泳에 一分八秒九의 世界新記錄을 지엇다 從來世界記錄은 一分九秒六이다

大衆자즈音樂의밤
『오케ー』大자즈樂團卄餘名出動
四月八、九、十日三日間每夜午後七時半
本社大講堂에서
會費八十錢均一
本報讀者는 卄錢割引
主催 朝光會
後援 朝鮮日報京城販賣所

補精强壯劑
海狗腎
樺太廳官營採取 眞品
請求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草梁町三二二ノ三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二一二一一九番・振替釜山七九二二番

平壤 高級綢緞專門 廣林商會

中風
高血壓・神經痛에
原因을確證
今津博士・根本的治療

땅기고・두통・귀울고・현기・동기・졸도・부배증・신경쇠약・부어오르는증・천식・마음졸니는증・고혈압・저린증・동맥경화증으로돌연히 노일혈이나 심장마비로 눕게되든지또는반신불수・허구분증 중풍의괴장등에。

그원인은 술、담배、림질매독、변비、편식、신장병당뇨병、위장병、흥은냉과리、상처、난산등、혈액이호리여순환이낫버서생김으로써 혈액을정화하면치료되는 것올시다

한 今津博士는여러전문의학박사와함께 고심연구한결과 한혈액정화제를발견하야 지금까지불치의병이라생각하든 다수의난병자를、전국각방면에서、완치하고비상히기뻐들합니다

이런병에고생하는분은하로속히、신내함

大阪醫學研究所(今津研究所)에자저가시든지편지에용태를쓰고조선말본주소시라고 써서속히의뢰하여속히전쾌를도모하시라! 박사의권위적연구와수다한실제경험에기한 상에적당히、료법을친절히가르켜드립니다。

동소를방문한 필자는박사의진검한 연구와、전국각방면난병자로부터보내여준、눈물겨운감사장을보고、이신치료법이야말로 참으로난병자에입대복음이라고확신하엿습니다。

京城外國語學院 高等普通學校入學準備生徒募集
◎準備科成績! 今年各官公私立高普及商業學校入學率約八割强
▲甲組高普一年入學準備
▲乙組高普二、三、四年補缺準備
▲甲組丙名試驗入學乙組許可
▲開學 四月八日
京城府授恩町 (學則要二錢切手)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各四十名
入學期日 高等科、普通科、速成科 三月末日(但補缺生으로서隨時入學을許함)
特典 一、普通學校卒業程度의者와無試驗入學을許함
二、本校入學生에限하야英語及滿洲語를無料教授함
三、本校在學生은他의公立學校와同樣汽車、汽船의割引이잇슴
京城府太平通(電話本局②〇四九一番)(振替京城二三一三七番)

女給募集
家族優待、月收入ー百圓以上 面談
行先地奉天 某一流カフエー
募集場所 京城貫鐵町一〇二番地 鍾路旅館事務所 電光一〇三番

肥滿劑
身體瘦瘠한데여러가지療養도無効하야困難한분은藥書를申請하면 胃腸을健全히하며害업시身體肥滿히하는良藥의說明書進呈
東京市麻布笄町七十一 小川藥院

당채색
(商標送呈)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六番)

商標登錄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社 電光一一五九

天野テント商會

淋疾……………ネオヂリン(네오지린)
속으로괴로운
各有名藥店에잇슴
먹고愉快하여진다
京城本町四丁目 株式會社 木村藥房

待望의巨篇四月七日브러 特別大封切
米프린스빠루超特作全發聲日本版
한노ー의復讐의後篇
魔人島
巨星배라ー루고시氏 主演
黑人魔術과白人魔術의世紀末的激烈한鬪爭은絕海孤島! 鋼鐵의소래 凄慘한그곳에서本格的으로사랑의心魂을뒤흔드는怪異배라루고시氏의得意轉上의怪奇戰慄篇
코림비아特作全發聲西部大活劇
喧嘩渡世
監督고ー돈배넷트氏
暴風의亂! 興猶한사랑의旣路는의猛襲으로깨지고復讐의鐵路는西部의風雲을捲起한다 西部劇의覇王매이나ー드의熱演!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大江秀夫氏監督
銀鱗の花籠
ハヤブサヒデト氏主演 大岡怪童 琴路美津子助演
電光三九五 優美館

봄! 薰風!!
近代流行의淡肌色!
・이것은現代女性의魅力이다・
三好化粧品은 研究와 實驗에 盡力하고 實際에苦心한結果로 나날이 其實과 質이가장進步的이요 實用的인化粧品입니다
本社主要製品(外五十餘種)
三好クリーム 三好固煉白粉
三好水白粉 三好ペラーム
三好煉白粉 三好コンパクト
三好瑚白粉 三好張粉白粉
三好化粧水 三好頰紅
三好香油、コリア石鹼
三好香水 (코리아)
三好ボード 鷄林石鹼
三一石鹼
京城府昭和町一五九
三好化粧品株式會社
振替京城一五九五八
電光(3)一七二七

慢性胃腸病に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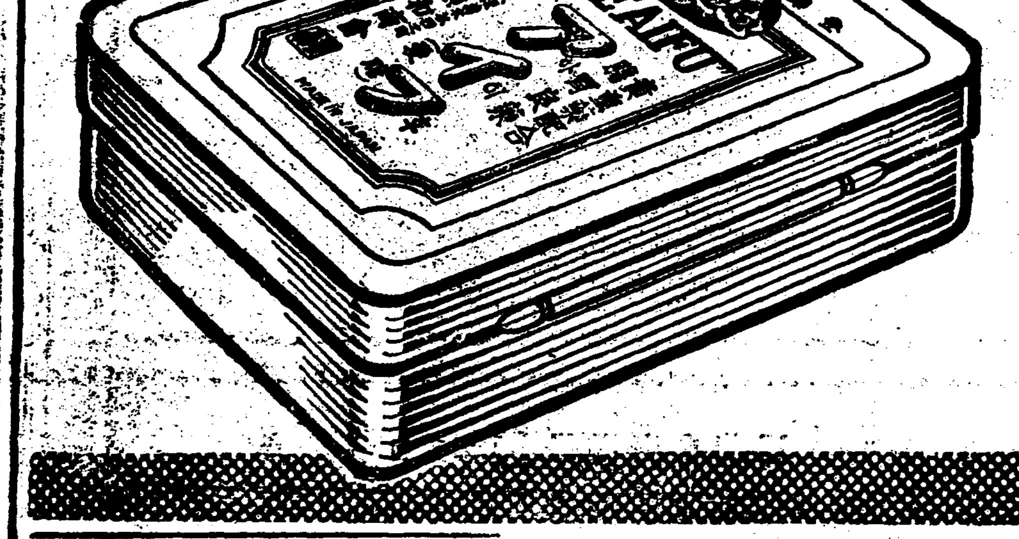
アイフ (아이후)

快癒를希望커든
于先 病因을精査치 안허서는 안됨니다

複雜한胃腸障碍의 禍因을究明치도안코、無批判的인藥劑를亂用하는것처럼危險한것은업습니다。胃가낫부다고 消化劑를服用하고、가슴이쓰리다고해서制酸劑를服用하야、그로써一時的으로 糊塗만한다하면無關하겟지만、뒤니어생기는胃潰瘍에、胃癌에 無關心하지나안흘는지?『胃腸病은낫기難하다!再發키쉽다!』라고말슴하시기전에、왜 그런病症의原因을 除去식혀버리려하지안코、오직胃酸過多이다、消化不良이라하더라도그症狀의根源을차저보면어느덧 胃腸가다루가잇고、胃弛緩症이잇고 胃下垂、胃擴張、下痢便秘가잇다하는것을 이제서는안됨니다。따라서 胃腸粘肪의炎症、糜爛弛緩를治癒하며、分泌及蠕動異常을 整齊치안케되면、過剩胃酸을吸收하며、不消化物을 酵素劑의補助를기달이는가튼偏頗한治療法에萬全을期치못할것은 當然한일입니다。하믈며、榮養劑에依한胃腸組織의强化로써治癒에로 引導하려고하는等消極的手段은、이런症狀에가장迂遠한길이라고안할수업습니다。

快適한 治療効果를어드려면、胃腸障碍의全面에作用하야敏活한治療力을發揮하는合理的인藥劑에만期待가되는것입니다。治療藥アイフ가賞用되는所以도이에잇는것입니다。

即アイフ는病原、對症二重의作用을겸처、主藥의 胃腸內壁의瘡面에沈着하야 炎症을醫하며、粘膜을强化、弛緩를주려단기며分泌及蠕動異常을整齊하는等敏活한病原治療를營爲하며、따라서胃痛腸痛、下痢嘔吐、食慾不振等諸症狀을消退식혀全機能의健全한活動을助成함니다、따라서痼疾의胃腸疾患者까지도好轉식히는것입니다。



大阪市東區淸水谷西之町
發賣本舖 順和商會
振替大阪三四五五番 電話(東)五〇〇〇•五〇〇二•五〇〇三番

東京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番地
振替東京六二二八八番 電話小石川(四)〇一〇一番

大連 大連市山縣通一丁目
振替大連三七六五番 電話七六〇八番

藥價

胃와腸의兩病에는アイフ(粉末)
四日分 七十五錢 | 十七日分 三圓
八日分 一圓五十錢 | [illegible]十一日分 五圓

胃病專門에는 健胃アイフ(錠劑)
七十五錠入 五十錢 | 百六十錠入 一圓

▶全國到處有名藥店에잇슴◀

신입학동들에게 버릇디려야할 열가지 조목

학교는학교대로 주의가잇겟지만 위선 가정에서 식힐것

귀여운 애기네들이 이제는 학교생도가 되여 날마다 학교를 가게 되니 오작이나 대견하고 신통하시겟습니까? 더구나 하늘에 오르기만치나 그 어려운 입학난리의 고개를 넘어 서서 무란히 입학된 것을 생각하시면 얼마나 다행하시겟습니까? 그러나 입학도 어렵지만은 공부시키기가 더 어렵습니다。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반일이 지낸폭이라고 생각할수 잇사오나 먼 려행에 겨오 신발을 끈폭으로 압길이 까마득합니다。하여튼 애기네는 버릇드릴랏 지금부터 버릇을 잘가르치서야 합니다。그중에도 가장 주요한것으로 몃가지를 여쭈어 드리오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一) 학교에 돈을 보내실때는 될수잇는대로 어른이 즉접선생님에게 갓다 전하도록 하시고 정히 부득이한경우 애기네를 시키시거든 봉투에 너허서 단단이 봉한후 성명과 액수를 적어서 꼭 선생님에게 갓다 드리도록하십시요 간혹 애기네들이 낫모르는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도 잇고 애기네가 군것질이나 구경으로 업새버리는일도 잇스니 특별히 주의하시되 애초부터 학교에서 좃지업는돈은 보내시지를 안토록 하십시요

(二) 날마다 학교에서 돌아 오거든오늘은 무엇을배왓느냐 물어도보시고 어떠케 공부를 햇느냐 공책도 뒤저 보십시요。특별히 공책가튼데는 선생님으로부터 학부형에게 보내는 편지가 끼워잇기도 하니 꺼내 보십시요。

(三) 뒤지라든지 손수건이라든지 날마다 너코 다니게 하십시요。

(四) 모자 두루매기 가방책보 양복 저고리운동화등에는 먹이나 잉크로 성명을 써너호시고 고무신에는 성명을 칼로 새이십시요。

(五) 교과서니 공책에도 일일이 어느학교 멧학년 멧조 누구라고 써 주십시요

(六) 옷은 비단옷을 절대로 입히지 마시고 구두도 가죽구두를 신기지 마시고 함부로 뛰고 작난하기 조토록 허름한 무색옷에 고무신이나 운동화를 신기도록 하십시요。또 녀자애기네라도 얼골에 분을 바르거나 머리에 밀기름을 바르지 말아 주십시요

(七) 공연히 선생님이 노여하신다는등 선생님이 걱정하신다는등 공동하야 선생님에 대한애기네의 감정을 미리부터 무섭게만 가지게 마시고 그반대로 선생님이 너를 귀여워하실것이라고 자꾸 일러둘리어 주십시요。그러고 모르는것을 못더러도 핀잔을 주시지말고 친절히 가르처 주십시요。

(八) 제물건은 제가 정리하고 제책보는 제가 싸서 그런데까지 어른의힘을 빌지안토록 하십시요。그러나 날마다 어른이 책어며 책상이며를 보살피어 무엇을 잇버리지나안나 또무엇을 일허버리지나 안햇나 보아주도록 하십시요。

(九) 애기네가 길이 익도록까지는 다라고다니시어도 무방하나 오월안으로 저혼자 다니도록 훈련을 시키어 가도록 하십시요。그리고 학교에서 나오는길로 바로 집으로오도록 잘일러주십시요。

(十) 사괴는 동무를 주의하서서 나뿐아히들과는 절대로 추축하지 안토록 하십시요。

鄭順媛女史의 中國料理講習

市內西大門町 女子基督靑年會에서는 오는九日부터 長期中國料理講習會를 한달동안한다는데 講師는 鄭順媛女史를 초빙하야 每週木、金、兩日間을 定員十五名으로하고 月謝金은 三圓이라고 뜻잇는분은 이달八日까지 同會로 申請하라한다

간긔란 잇던병

양의가본 ③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우에 말한것과가치 연분이 아이게 유독한고로 젓을주는시기에는 분의사용을중지하는것이 제일안전하며 그러나 혼희장을 녀자의생명이라해서 중지할수업는분은무연백분을택하야 사용하시기를간절이권합니다 납의유무를 검사함에는 누구나 얻을수잇는 극히간단한 법이잇습니다 즉 백분검사지(白粉檢査紙)를사용하는데 이검사지는 백화점에혹잇스며 시내한진찰재단 건강상담소에서는 그저 준다고합니다 어더다 시험해보시길 바랍니다(납든분은 검사지에 조금 찍어서 분에대면 조이가황색으로 변합니다)분곽에 무연백분이라고써서팔지만 혹시유연한것도 잇스므로 안심할수업습니다 그러므로검사해보고 쓰는것이 안전하며 김싸고 잘파는분은 흔히납이드러잇습니다 날이점점 따뜻해지므로 분을 만히 사용하실줄압니다 이기회에 아못조록 무연백분을 택해사용하시길 거듭부탁해둡니다。

三、소화불량증

소화불량증에는 모유영양과 인공(人工)영양에 오는 소화불량증이 잇는데 본증의원인은 두가지잇습니다 그하나는 외인적장해(外因的障害)로 오는데 그원인은 과식 소위 과식성소화불량증입니다 젓을 흔히 일정한 시간에먹이지안코 무시로먹이기때문에 과식하게됩니다。불란서에서는[illegible] 두시간만에 한번씩젓을 주는고로 비교적 모유아소화불량증이 만코 독일에서는 네시간만에 젓을주는고로 소화불량증이 비교적적다고합니다。

그다음은 젓먹이는데는 조금도 결점이업스나 삼출성체질(滲出性體質)이상체질(異常體質)신경증체질(神經質體質)등의 이상체질이잇는아이에게 흔히 본증을 보게됩니다 증상은 간기의증상과대동소이하므로 약합니다。

치료와예방

치료는 그증상이 경중에따라다르나 먼저 젓먹이는 회수를 주려 대단치안흘때는 三-四회로감하고 대단하면 三회로하고 부족되는것은 보리차혹 미음으로 대용해가면서 그증상을 보아서서히젓을 만히 주는것이좃습니다 약으로는불안해할때는 『부롬나-르』『칼모친』『루미나-르』등을주며 또설사만는『탄나르빈』『탄니-껜』『아루시린·피스무-트』등을줍니다 이와가티 소화불량증을 료하는중 특히주의할것은 젓이 감소되기쉬운고로 젓이 부르면 젓짜는기계로 힘써짜며 혹은다른건강한아이에게 빨리는것이조습니다

내인(內因)으로는 소화불량증은 六七개월된아이면 지방이적고 함수탄소(含水炭素)만흔 인공영양으로바꾸어 기르는것이긴요하며 그외에 『까세인』으로맨든 죽,누른로-제(혹푸락스몬)을 하로세번혹은네번식 젓먹기전에 아이수깔노 한숟씩주는것이조흐며 촘더자라면 과일、야채를 주는것이 대단히필요합니다。

어떠한병이나 예방이 필요하지만 본증에잇서서도 역시 필요합니다 이목적을달하려면 유아젓 먹이는법을 합리적(合理的)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면유아의 합리적 수유법(授乳法)은 어떠냐하면 모유와 우유가 다소다르지만 이제 그내용을 말슴하면 다음과갓습니다

가、수유회수(授乳回數) 하로에 오회(특히오회가리상적)로할것。

나、젓먹이는 시간을 한번에 십오분내지이십분으로할것。

다、젓먹이는 간격을 네시간으로할것。

젓먹이는 시간의간격을 네시간으로하는리유는 모유던지 우유던지 위(胃)에 드러가서 소화가 다되기까지 약세시간걸립니다 즉젓먹은뒤 세시간지내면 그것이 소화가 다되여 위안에 잇던것이 거히다 내려가서 위는 비이게됩니다 여기서 약한시간쯤 위를 쉬게한뒤 즉 네시간된때 다음 제이회의 젓을 먹게함니다 이와가티 위소화가 끗난뒤 일정한 휴식시간을 주는것이 대단히 긴요합니다 만일 휴식시간업시 자주 젓을주면 위는쉬일새업시 늘 일하게되므로 필경 위가약해저 소화불량증을 이르키게됩니다 그러면네시간에 한번씩주면 하로에 여섯번인대 아츰새로두시에 줄것을 빼고 하로에 다섯번주는것이 가장합리적입니다。

꿈과동경의나라

자녀들에게는 조흔음악을 ②

어머니가 몸소불러줍시요

어린애기가 남자아히라면 견실하고 성취가잇고 쾌활한것으로하고 녀자아히면 온정미가흐르고 양전하고 조용한노래를불러주는것이 조켓습니다、정서가 풍부하고 바약하기는 이시대에서 결정되는것임으로 어머님이 되시는 분들은 애기들의 장래를 위해서 애기에게 적당한노래를 만히 불러주시도록 힘써주십시요。

그런데 한가지 곤난한것은무어인고하니 거리에 류행하는류행가를 애기들이 부르게되는것입니다。혀가 잘도라가지안흐면서도 자조 돌리는소리라 머리에배히게되고 입으로 부르게됩니다。그를 부모되신이가 그아히에게 류행가를 가르처줄리야 업겟지요、마는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애기들입에서 흔히 나오는노래중에는 「곰이와네 붕이와네」 수천네의가슴에도 놀라든노래가 돌리게됩니다。우리조선가정에서는 레코-드를 선택하는데잇서서 대개는 그러케 생각하는것 갓지를 앙습되다 말하자면 어린애가 잇거나 말거나 어른들이 듯기조흔 노래면 류행가고 무어고간에 사드리는폐단이 만히잇습니다。우에서 말슴하기는 음악은 어린이의 정서교육에 필요한것이라고 햇지만、퇴폐적인 음악은 오히려 어린애에게 낫븐영향을 주는이외에 아모가치가 업는것입니다。그야아모리 집에서 주의를 식히드래도 어듸가서 어떠케 듯는일도 업지야안켓지만은 가정에서 부모들이 다-각각 낫븐류행가를 구축해버린다면 어린애가어더드를데가 업지안습니까、속된 류행가를 업새고 애기에게 조흔 동요를 만히 들려줘보십시요 애기는 반가워서 조흔만 부를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말슴드릴것은 어린아히에게 동요를 주는방법입니다 동요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명랑한것 쾌활한것 엄숙한것 조용한것 부드러운것 우수운것등의것이 잇는데요 어느것이나 어린애 리해할수잇는것이면 다-조켓습니다。어머니가 조용한것을 조와하고 애기에게도 조용한노래만 들려준다는것은 편벽된 것입니다 어린애의 성격을 잘살피서 어린애가 어느것이면 가장 조와할것인가를 알어야 하겟습니다。그러나 너무 칙칙한 노래를 불러주어서 아히의 성격을조용하는것이조습니다 라디오로서 들려주는 노래도 조켓지만 될수만잇스면 어머니자신이 가라처주는 노래가더욱 리상적일것입니다。

전차에도우체통

서전(瑞典)이란나라의 서울『스톡호름』에는 요새 시내에 다니는 전차뒤꽁문이에다 우체통을 다랏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는사람이나 내리는사람이 편지부칠일이 생겻슬때 가기다 너으면 그만이지요。대단히 편리도 할뿐외라 거리에선 우체통에 넛는것보다 배달이 빨라된다고해서 대단한호평이랍니다 (우의사진)

뽀이-학교

세계각국에서 도만흔 군들이 모혀드는『파리-』의 호텔에서는 식탁뽀-이들이 그여러손님접대하는 방법을 웬만큼쓸쓸히 알기에 매우 골머리를 알어야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파리-』안에 훌륭한 뽀-이학교까지생겨 접시나르는법이라든지 써-비스하는법을낫낫치 가리킨다합니다 이학교만졸업하면 어데다 내어노튼지 버젓한 뽀-이가되어 손님의비위를 마칠수가잇지요 (아래사진——교수시간입니다)

童話 요술우물의보물 ②

崔秉和

『이우물미테 진귀한 보물이잇단다』하고 노인은 말하고 『너는 이욕과가티 마음을 깨끗이가지지안흐면 안된다。누구에게도 보이일이업는것을 너에게만 보혀주는것이다。자 우물속으로 드려오너라』하고 말하엿습니다。

한짠은 엇더케 이우물속으로 드려가나하고 이상스럽게 생각하엿습니다。노인은 무어인지대여섯자 글자를 쓴조히를 꺼내서 우물속에 던젓습니다。그러니까 지금까지 넘처나올듯하든 물이 씻슨듯이 업서지고돌충계가 족- 아래로 내려가도록 노혀잇섯습니다。

한짠은바-드마나바노인의 뒤를따라서 엇전지 무서운마음을 가지고 한층한층내려갓습니다。어느듯 두사람은 어느쇠문압헤 다다럿습니다。

노인이 그쇠문에다가 손을대니까 쇠문은 소리도업시 제절로 열리드니 커다란 대궐집이 나타낫습니다。그런데 대궐문압헤는 장승가튼 흑인(黑人)이서서 두사람이 들어갈냐고 하니간 흰대리석창을 집어서 덤질냐고 하엿습니다。

바드마나바노인이 살작손구락으로 흑인을 시치는듯하더니흑인은 꼼작도못하고 너머저버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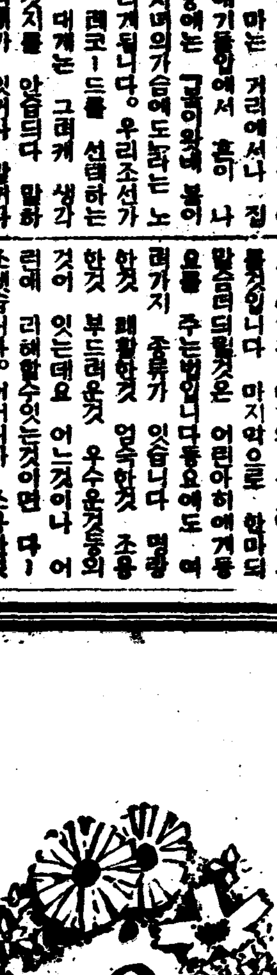
이러케해서 방해하는 물건이업서젓스므로 두사람은 것칠것이 업시 대궐을지나서 이제는넓은뜰로 나왓습니다。그뜰한복판에는 수정궁(水晶宮)이엿서서 번적번적 눈이부실만치 빗나고잇섯습니다。

한짠은 그만압혜 보기에도무서운 사자두마리가 안저잇다가 두사람을보고 큰입을버리고 무서운 소리를 질느면서 덤벼드는듯하므로 깜작놀나서 노인뒤에가 숨엇습니다。

노인은 조금도 놀나는빗이업고 손을굽히드니간 사자는 갑작이 오순해지면서 두사람의 압흘서서 크고 훌륭한전으로 드려가게 하엿습니다。

넓은방의벽은 모다 수정으로되엿고 한가온대에는 돌제방이 잇섯습니다。고것은 보석한개로 세워진것으로 집웅에는 금강석이 번적번적빗나고잇섯습니다。

우리차지



노래

『벽락가티 지은집』

엘넬넬 지경닷고
라악락 돌다듬고
숙삭 큰톱질
직찍 대패질
네기둥을 세우자
청기와를 입히자
영창문을 다러라
안팍벽을 발러라
구둘을노코
장판을깔고
군불을 때면
연기가 뭉게뭉게。
—열두간짜리 기와집
벌서 다됏네。

(글쓴사람 왕방울)

無限愛【四】

全武吉 作 / 金熊超 畵

『어머님! 이것보서요。온순이가 도상신원을 보내겟지요。그리구 한주일후에는 와서 학원일을 도와주겟다구요。호호…』

영애는 기뿐소식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려고 안ㅅ방으로 뛰어가면서 이러케외첫다。

『뭐? 온순이가? 아이거…기특하고 갸륵해라。그애가늘큰맘을씨누나。작년여름에도 와서 도와주엇는데。』

『그러기나 말이조。이제 오면애들이 최선생님오섯다구 모두 반가워할걸……』

『그러치。작년에두 좋주는것…아이구 뭐라구。허드라? 나는 작구만 이저버린누나…… 그것배와 주어서 조와들하더……』

영애어머님도 온순이의 호의를 감격해서 반기엇다。

『또하나는 뉘게서왓니?』

넘치는 기쁨으로 설렵벙하는통에 또한장의 편지를 이저버리고잇던 영애는 어머님의 주의로 비로소 다른한장이 자기손가운데 들어잇는것을 깨다럿다

『아이거나 난 깜박 이젓섯네……글세, 뉘편진지 뜨더봐야 알겟서』

영애는 편지피봉을 뜨드면서이러케 대답햇다。

『……사모하옵는 영애씨——

저는 당신의 리상과 사업을 절대적으로 리해하고 지지합니다。제가 부족하나마 당신의 영원한반려(伴侶)가 될수업슬까요? 이미 간정으로 말슴드려왓지만 당신은 저와결혼하실수업습니까? 저는 우리의결혼이 결코 당신의사업을 방해시키는일이 되리라고는 밋지안습니다。아니도로혀 한거단 더행복되여질것으로 확신합니다。(下略) 박춘호 올림』

영애는 편지를 훌터보고나자 절반을 무질너서 내버렷다。물끄럼이 바라보고잇든 어머님은 이광경을보고 놀래는듯이 뛰어가서 그내버린편지를 주서들엇고 그리고는 찌저진편지를 이여마추면서 이러케말하엿다。

『대관절누구손편지가에 그러케 찌저버리니? 내가 조흘까?』

『아서요! 보시긴 뭘보신다구 그래요……』

『가만잇거라。어미가 좀보다기로 상관잇니?』

영애어머님은 딸의팔을 뿌리치면서 기어히 편지조각을 모아부처가지고 읽어보앗다。그리고는 쓰다담다는말이업시 한참만치어다보앗다。얼마후에야 어머님은 입을버렷다。

『애-영애야……』

『네?』

『글세 너두좀 생각해볼 문제가아니냐? 대체 여자가 시집가는것은 천리구 도이편지한사람으로말하면 얼마간 공부두햇구 또돈두만치안니? 그러니까 그런사람과 결혼을한다면 물론네가하는학교두 잘지어줄는지 알겟니? 또도문제는 제처노코말하드라도 결혼해서 살면서둘 에둘공양부모시킬리가잇니?』

그어머님의 말슴은 확실히 걱정과 민망해하고 딱해하는정이서리워잇섯다。

『글세 그문제는 벌서부터 제가 어머님께 말슴드리지안엇서요? 여자가 결혼하면 무슨자유가잇서요? 살림에억매운 종이되지요。학교집을지어주어요? 휘- 바로 자기가살집은 몃만원을드려 지을는지 모르지만 그심정에 학교를지키는 만무합니다。이것보서요。이동리 백가구(百家口)중에 제대로 학비를드려서 공부할사람이 몃사람이예요? 그들이 캄캄한세상을 거러나갈것을 뻔-히알면서 내버려둘수는 업지안어요?』

『애-네뜻은 놉다만은 네말대로만 한다면 이세상에 사람종자가 남어나겟니? 모두다 일할네……하고 시집가지안코 장가가지안으면 사람종자라고는 도묘지 멸종이될테니 그때가서 공부는시켜다가 무엇에쓰겟니?』

『아이유 어머님은 아주극단이시네。저만이 시집안간다는거지요 다른사람이야 제뜻대로 시집장가 가지안슴니까?』

영애는 웃음다는듯이 허허웃엇다。그러나 그것이도로혀 어머님의 노염을샀다。

『대관절네가 외세상을 다-버루잡을테나? 웨주제넘게구니? 한낫계집애가 시집아나가자! 제가알면 몃푼어치나 안다고 저보다더한 사내들두 그럭엉뚱한마음을 못먹는데 한갓계집애가 엉큼스러운소리만하구 네아버지가 마일사라게시다면 네가그처신을하고 도라다닐법이나하겟니? 콱! 퇘! 에이 될대로돼라。』

영애어머님은 갑작히 상가가되여서 일장욕설을 퍼부은뒤에 대문을향하여 나갓다。

『저걸 그래두 자식이라구 밋고살엇군!』

어머님은 나기든벌거롱을 되돌려세우고 다시미진한 눈꾸리를 하려는눈치를 보이다가 고만침어버리는듯이 입술에 경련을 이르키면서 나갓다。

영애는 어머님의 심정을 잘알고잇스므로 다만잠잠히 듯고만잇섯다。

初春의

上氣 不眠
頭重 憂鬱
몬저 原因을除去!

血行의不調로부터일어나는腦神經病에頭痛藥을濫用하드라도 對症用의一時的抑壓에不過합니다。于先血行을整齊하며安眠과通便에依하야原因을除去식히는것이絶對必要하다

건 뇌 환 健腦丸

健腦丸의 綜合効果

健腦丸은一劑라도血循을바로잡고、亢奮을鎭定하야自然히安眠과便通을快하게하야서速히腦의疲勞를除去하고病源的으로頭痛、眩氣、不眠、上氣等을一掃하야서腦神經의作用을昂進케하며頭腦를明快하게記憶力을增進케합니다。

近代人의頭腦保全藥!

主効 頭痛、上氣、耳鳴、不眠、眩氣、便秘、憂鬱、히스테리、健忘、中風、卒倒

賣價 五十錢부터 十圓까지 各地藥店에잇슴

東京 丹平商會藥房 發賣元

수 治水

송곳으로쑤시는듯한압흔齒痛이 곳鎭定되는感謝喜悅

齒痛에는……… 무엇무엇해도今治水

主治 虫齒痛、上氣 胃腸痛으로 된 齒痛 들은이

定價 二十錢 三十錢 五十錢 全國藥店にあり

戯曲 春香傳 (三)

【兼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刑房 안된다!

獄囚二 안나가유!

刑房 야놈 나가거라!!

獄囚二 노아요! (하면서 얼른 御使道의 신발을집어가지고오리가리 몰어찟는다。찟다남은 신발을 보이며)……이래두 안되유?

夢龍 저놈 몰아내처라!

使令 예-이。

(使令들 달려드러 獄囚二를 몰아내려한다)

獄囚二 (發惡하며) 제-미랄삿도가든니! 이런법이어딋스노? 춘향이라는에는 조금만헤두발악과청 혓다고 하옥헤 주엇다는데 웨나는 하옥헤 주지 안노? 처하에! 이런 고르지 못한 법이 어딋느나!

使令들 나가거라。아주립합자식!

(使令들 獄囚二를 끄으러낸다)

夢龍 그다음! 얼른 잡아드려라。

使令 예-이

(하고는 나가더니 獄司丁, 使令數名 春香이를 다리고 들어온다)

刑房 성춘향이 현신이오。

(夢龍은 春香의 참혹히 옷한형상을보고 양미간이호린다。夢龍은 그러나 自己의 흥분되것을 안보이량으로 부채로 얼굴을 가린다。)

(使令들은 春香의칼을 벗겨준다。春香이가 끄을려올제 數使令들과 其外에 南原邑老少婦女들 數百名 따라드러와 東軒앞에 가득찬다。그中에는 春香이가 불상하야 우는夫人도잇고、흥분하야 떠드는女子도잇다)

夢龍 (이러서며) 어떠한 부인들이 이다지 만히왓느냐? 무삼 연고를 알외여라。

婦人甲 (出頭하야 엎드리고) 과부등 白髮한몸 지원(至寃)한일이 잇삽기로 왓나이다。

夢龍 무삼 소회(所懷)인지 엿는대로 서서히 알외여라。

婦人甲 렬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는 천지간 오둔이대 몽령하신 방백수령(方伯守令)님네를 모로리까? 월매딸 춘향이는 어미는 기생이나 아비는 재상(宰相)이라 구관치제 이도령과 백년배필 맺진후에 호사다마되여。도령님을 리별하고 수절하고잇는것을 본관사주(本官城主)도임후에 춘향을 잡아다가 기안에 착명하고 수청들나 달내여도 종시 執事(執事)아니하니 춘향을 잡어내여 장하(杖下)에모지형벌 저러케 되엇스니 명치하신 사스도 처분, 렬녀춘향을 특히 방송하옵심을 하놓가러 바랍니다。

婦人들 (一齊히) 어사스도처분만 기다리오。

夢龍 춘향은 창녀로서 관정발악 하얏다니 만일 그러하면 용대(容貸)치 못하리라。

이웃婦人 (눈섭이 꼿꼿서며)어보 어사스도、이처분이 웬말이오! 제서방 수절한다고 잡아다가 형벌하는 놈은 그래 죄가 업고、그게 그러케 대단한죄다고、관정발악의 죄 헛인가? 어허 참 공사(公事)도 우습고나!

婦人 그런 공사를 햇다가는 참 큰봉변하리다!

이웃婦人 그러지마시고 어사스도 봉명사신(奉命使臣)이시니 몽룡인가 하는 아이도적녀석 역졸을 보내여 서울 그 이부터 썩 잡아다가 다바 롱장주리를 돌려주시옹。

羣卒들 (나서며) 쉬!

이웃婦人 쉬가뭐냐。네가역졸이라고그러느냐? 썽역졸보니장히 무섭고나。

老婆 (가러羣卒에게대들며)자 죽일려어나? 죽여라。죄업고 늙은나를 어사스도면 어찌할고?

夢龍 (오큰히滿足하야)허허…사필귀정(事必歸正)이니 부인들은 념녀말고 다 각기들 가라。(春香을보고)돗거라、춘향아!

春香 …………

刑房 이년 분부드려라!

春香 …………

夢龍 아모대답이업스니 이상하고나。이애들아、춘향이좀보아라

羣卒 예-이。(고개를땅에박으며 엎드러저잇는 春香을흔드러보더니) 죽은 줄로 아뢰오

夢龍 무어?

刑房 춘향이는 오늘이 죽는날인 줄 알고미리 자결하엿나보오。

夢龍 자결? 이게 무슨말이냐? (뛰어내려와서)춘향아! 춘향아!(春香의몸을흔드러본다 細細히 春香은畢竟해졋다。夢龍의 너무놀내는양을보고一部에서는 의아하야 수군 거리기도한다) 물을 가저오너라。얼른 물가저와!

羣卒 (네하고 밥비나가더니 곳 물을떠가지고온다)물을 여기 잇소이다。

夢龍 (물을春香에게 뿜이다。몰올먹이고는) 춘향아! 춘향아! 정신 차려라!

(春香은 겨우 정신이 돌아온듯 눈을번히 떠본다。그러더니 千秋에매친 원한을 하소할바 바이업서 이를 바드득 바드득 갈며 소소로처 운다 구슬가튼 눈물이 두눈에서 떠러진다。이우름은 오장육부에서 터저나오는우름이 아니오 六千마듸 뼈속에서 새나오는 것도 아니오 이는 꼭 쓸개에서 짜내는 우름이라하엿다)

春香 (이를갈며)서방님! 서방님!

夢龍 춘향아 정신을 수습하여라!

春香 (정신없을듯사람가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서방님이 어듸깃슬까? 어저녁에 오섯슬제 오늘내죽는이자리에 죽와 줍시사고신신 당부하엿것만…… 야속한내랑군은 죽기전에 안와보고어듸가고 안보이나……

夢龍 춘향아、나 여기잇다。

春香 ……네?

夢龍 (소두락에서 三年前 서로 離別時에바던 指環을 빼어 春香의손에 쥐어주며) 이것 보아라。이 지환을 보아라。

春香 (指環을마저보더니 두려지라고 夢龍을 치어다 본다)……

夢龍 이게웬 일이오?

夢龍 나는 봉명사신으로 이번에 내려왓다。

春香 아니 당신이?(하면서 夢龍에게 매달린다。새삼스럽게 夢龍의 가슴에다가 얼골을 부비며운다。겨우우름을 수습하야)……애고 당신도 모지고 독한니다。엇저녁에 옥에 오서 내형상 보섯스니 그런말슴 귀뜸이라도 해주엇스면 이념은 마음이라도노코 잇섯슬것을…

歷史科學方法論

『이데-』型에서『觀念形態型』에

❶ 鄭賢奎

現在 하편에서는 歷史哲學의 復興이高調되고 잇슴을 보고 그와동시에 또는 그와 꼭가튼程度로 하편에서는 歷史意識의 喪失이 高調되고 잇슴을 본다 習通으로 歷史哲學의

復興…… 歷史意識의 復興을 前提로하며 歷史意識의 喪失은 歷史哲學의 衰微를 同伴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우에서처럼 歷史哲學의 復興과 歷史意識의 喪失이 同時에 또는 꼭가튼程度로 高調되는 것은 어떤意味로 理解하여야할것인가 그것을 理解할길은 다만 두길뿐이다 現代라는 特殊狀況안에잇는 同一한 契機의 兩樣의 把握이든가 現代라는 特殊狀況그것속에 가튼 두개의 矛盾된 契機를 本來부터 가지고잇다든가 그밧게 理解할 길이업다 그런데 同一한 契機의 兩樣의 把握—그중에 하나는 歪曲되는把握—이란 우리처럼 歷史哲學하는『學』이라든가 歷史意識하는『意識』이라든가를 그 存在拘束性에서 보고저하는 자에잇어서는 그것을 把握하는歷史的社會的主體가 다름을 前提로 하여서만 可能하다。

그런데 歷史哲學의 復興은 헤-겔누·벳산스를 高調하는 헤-겔學徒로 말미아마 歷史意識의 喪失은 다름아닌 헤-겔學徒의 一人스그로체로 말미아마 高調되고잇다。『헤-겔·루-넷산스』를 高調하는 헤-겔學徒나 歷史意識의

喪失…… 을 高調하는『그로체』나 다가티 同一한 歷史的地盤우에 섯다。그러기때문에 우리는 結局 現代라는 特殊狀況그것속에 本來부터 矛盾된 두개의契機를 同時에 가지고잇다、라고理解할수밧게 업다。그러나 이럿케말할때에 歷史哲學研究의 復興과 歷史意識의 喪失的으로 對立시켜서 矛盾으로 理解함은 決코 正當한 把握은 아니다 차라리 우리는 歷史意識의 喪失그속에서 同時에 또는 同一한程度로 歷史意識의 復興을 보지못해서는 안되다。

왜그러냐하면 歷史意識의『喪失』하는『喪失』이나 歷史意識의『復興』하는『復興』은 同一한過程의反省的對立的契機이기때문이다 그러타면 우리는 일즉이 過去의 歷史過程을 生成에서 보지안은적이 업스며 그러기때문에 또 歷史上 그어나瞬間이든지 喪失과復興의 反省的 對立에서 보지안흔적이 업슴에도 不拘하고어재서 現在라는 特殊狀況에서만 그것을 沒落으로 느끼는가 그것은 다름이 안이다 現在라는 特殊狀況이 舊質的連續인 歷史發展의 道程중에 質的飛躍이란 색다른狀況에 노혀잇기 때문이다 이가튼

狀況……이 一般으로하여금 歷史的批判에게關心을 가지게하며 歷史哲學의 研究에哲學的思索을 集中시킨것이다 이와가튼 따한情況에 노혀잇는그들은『過去업는未來』에『突然새것 그것에』(過去와 繼續된生 그것』에로의 飛躍的進步에 熱中하거나『過去에서 未來에의歷史的自覺』과『歷史的發展을 더듬어 將來에』의 進展을 꾀하거나 하게되엇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因緣이업서보이든 歷史意識의 喪失과 그것의 復興은 同一한 現實的歷史過程에서 理解할수잇슴을 알수잇다 우리는 이와가튼 關係 即 歷史意識의 變革과 歷史的 社會的 現實의 轉換期와의 關係를여러번재 經驗하여온것이다『啓蒙主義의 凱旋』 또는 破綻은 佛蘭西大革命이다、그리고 동시에 大革命은 啓蒙主義의 歷史敍述의 凱旋이며 破綻이다』라고『그로체』는 말한다 다른學者『달타이』는『예나敗戰에서 獨立戰爭까지의 期間에 獨逸人의 全關心이 歷史的 世界에轉換되엇다』을 指摘하엿다、『十九世紀史學史』의 著者『구-치』는『一七八九年 革命이 처음으로 第三身分에

注意를 끌게한것처름 歷史家로하야금 第四身分에 注意를 끌게한것은 一八四八年 革命이다』라고한다。

우리는 이와가튼 아카데미學者의 例를 끌것업시 歷史的觀照의 變革은 歷史的資料에 依하는것보다 現實的歷史의 變革에 依存하는것이다、이처럼 歷史的觀照가 現實的、歷史的事實에 依存하기때문에 歷史的 世界에 새로운事實이 이러날제 過去의 모든 歷史는 새로운 觀點에서 보와저야하는것이다。

이와가티 歷史哲學 歷史意識 歷史敍述이 現實的、歷史的存在의 存在拘束性에서 보와저야하는以上 또는 現代라는 特殊狀況에서의 歷史意識의 變革의高調가 現實的社會의 限界狀況을 反映하는것을 意味하는것으로보아야하는以上 우리는 이와가튼 現實的見地에서 歷史方法論을 다시보와야할것이다。

×

이곳에서 取扱코저하는 歷史科學方法論이란 어떠한것을 意味하는가 우리는 어떠한概念이든지 그內容속에 歷史的要素를 包含치 아니한概念이 잇슴을 아지못한다。그뿐인가 모든

概念……은 이와가튼 觀點에서만 正當히 把握할수가 잇슴을안다、歷史學의 方法論도 그歷史的 社會的存在의 存在拘束性에서 把握하여야할것이다。前世紀初 思辨的歷史哲學派의 方法論이라든가 經驗的 歷史學派의 方法論이라든가 實證主義時代의 自然主義的 史學派의 方法論이라든가가、서로 다름은 그들의 現實的 歷史的 地盤이 갓지안키때문이엇다 그러나 이와가튼 觀點에서 보지안코 學의 論理的發展이란 觀點에서 考察할려는 사람들은 歷史方法論을『事象의 具體性에即한研究』와『綜觀的 全體的인研究』이들로 나눈다『事象의 具體性에 即한 研究』는 考證(Forschung)이란 일홈에서 文獻學的研究와 考古學的研究를 主로 하는것이오『綜觀的全體的인 研究』는 考察(Auffassung)이라는일홈에서 發展의理念을 主로 研究하는것이라 한다 그런데 이와가튼 分類의 規準이 學의論理的發展이란것이기 때문에 歷史科學發展의 初期에서는 具體的研究方法이 歷史科學發展의 後期에서는 綜觀的考察方法이 一般으로 行하여진다고 말한다。그러나 果然 그럴까 歷史的事實은 이것을 論明하는가。

故園紀行 ❶

袋山

忠北線淸安驛에서 東으로 四十里쯤 自動車로 드러가면槐山邑이라고 조고만 시골市街가나온다。그곳이 나의 故鄕이요또 지금 내가 向하고가는곳이다。실상 나는 서울서낫고 서울서 만히 잇섯스니까 원 故鄕이 서울이겟지만은 우리집안이 나까지 六代째 槐山서 살아서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아버지도 거긔서 生長하셧고 나도 또 여덟살서부터 열여덟살까지 거긔서 자라만큼 서울보담도 槐山을 故鄕처럼 생각하게 된다。오직 나만이 槐山을 故鄕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槐山人사람들도 다를 自己네 故鄕의 所產으로 생각하고잇슬찌 모른다。그러나 열여덟살때 서울로 떠나온後 故鄕을 잘다니지도 안코 또 잘 알려고도하지 안하야 故鄕이래야 서푼은 나그네나 진배업다。그래도 前에는 二三年만에 한番씩이라도 들리어섯는데 爾來 六七年동안은 발자최를 딱 끈허버리고 말앗다。不過是 한나절 길에 설마 하기로 틈이 업섯고 車삭이 업섯다고야 핑계할수잇스라? 아마도 내가 넘어나 沒人情한게리라。

鳥致院서 京釜線車를 바리고 忠北線車로 옴마 타니조금前까지 메다부치는 驛前道路의 액센트라든지 짜개발라 말의 調子가 석기어 들리더니 이제부터는 오즉 高低와 抑揚이 거의하나도업시 單調롭고도 실하롭과 실고 一直線으로 音을내어 몹라일사이에는 멧分의 時間이 허비될만큼 축 늘어진 말소리만이 원 車안에 그득히 들리고 잇다。車바퀴의 굴려가는 그소리까지도 言語環境이 갑작이 달려진 것을 깨달아 그러한지 마치 무거운 짐을진 소의 거름처럼 더디게 울리는듯 하다。나는 구태어 車窓을열어 뎁과산을 내다 볼것도 업시 忠淸道의 흙냄새로써 숨쉴수잇섯다。그것은 그말소리의 마듸마듸만 떨어서도 忠淸道 山川의 굿세지 못한 빛이 내눈아플 달리어 지나가는 까닭이다。아아! 營養不足의 患者와도 가티 衰弱한 忠淸道여。무덤을 바라보는 老人과도 가티 無氣力한 忠淸道여。옛날 兩班의 本據요 오늘날 官僚主義의 模範인 忠淸道여。十三道中에서도 가장 文化가뒤지고 民智가 떨어지는 忠淸道여。그들은 꿈에나마라도 果敢 壯快 豁達 雄大 猛勇한 事物을 對해 본일이 업고 그저 前後後膽、畏畏苟苟로써 當日當日을 安閑하게살아 왓고 또 살아가고자 할뿐이다。그러한 그들의 입속으로부터 우러나거나 거치른 말소리를 드르려는것은 오히려 나의 空想이요 妄想이다。

나는 故鄕을 앗기느니보담도 憐憫하고 故鄕을 사랑하느니보담도 미워하고 故鄕을 그리느니보담도 이저버리고자 努力한다。지금 나더러 朝鮮안 어느시골로 居地를 擇하라면 바다를 넘어 濟州島나 鬱陵島로 가고 北쪽의 邊地를 차저 三水나 甲山으로 갈망정 故鄕이라고 또다시 忠淸道의 땅을 찻고 십지는 안타。나가튼 사람을 길러 낸 우리 故鄕이 不幸일까? 아니 그가튼 故鄕에서 자라난 내가 不幸일가? 何如튼 어느편의 不幸이든지 不幸은 적지 안한 不幸이다。이不幸을 除消하는 오즉 단한가지의方法으로 나는 六七年동안이나 故鄕을 오지 안하얏건만 그대로 故鄕은 故鄕、지금나의 발거름은 不得已 그곳으로 向하야 떼노케된다。

一行으로부터 떨어저 안저 눈을 감고 이것저것 생각하는동안 車는 어느듯 淸安驛에 다헛다。우리는 驛을 나와 빨리 自動車部로 달리어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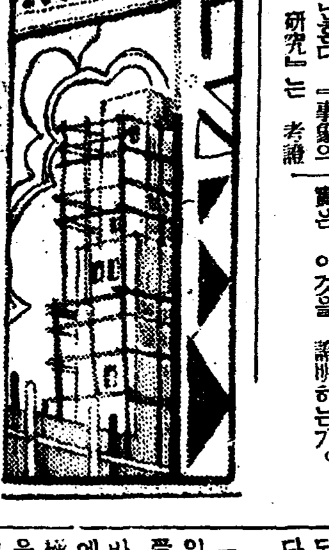
漢詩

春雲—押花 桐岡考選

選外佳作 三

宜川 桂智淳

蒸騰水氣半天遮。
藹藹英英浩罔涯。
掩過峰頭仍擁樹。
潤滋木末暗催花。
青黃古制紀官世。
豐儉前徵觀象家。
中有神龍行化柄。
須臾作雨雨桑麻。



奇蹟! 南極橫斷飛行의 榮冠을 얻기까지

"엘스워-스"漂流記

趙純永

再再昨年『바-드』의 第二回探險과 前後하여서 飛行機로 南極大陸의 探險을 始作한『링커-ㄴ·엘스워-스』는 新聞紙上으로 報導된바와가티 昨年即 一千九百三十五年十一月二十三日 南極大陸에서 突出한『단데-』島의 根據地를出發하야 南極大陸橫斷의 壯道에 올랏스나 不過數時間도채 못되여서 消息은 永永끗치고말엇다。

『노비레』의 飛行船『이탈리아』號가 北極에서 消息이 끗첫슬때는 世界에 一大『센세이슌』을 이르켯스나 南極은 北極과달러서 容易하게 探索할수업슴으로 各國에서도 救援隊를 보내기에 多少 躊躇하고잇섯스나『엘스워-스』의 探險母艦『위캇트·아-프』號는 亦是有名한 南極探險飛行家인『윌킨스』를搭乘식혀가지고『리레』를出發하엿다。『윌킨스』는 同僚의危難을 救하기위하야 投下하기에 必要한 모든物品을실어가지고 아마『엘스워-스』가着陸하엿스리라고 想像되는 鯨灣의갓가운 高原의 上空을 飛翔하엿다。同時에 英國『지스카바리-』二世號도 二番의飛行機를 積載해가지고『오스트랄리아』의『멜보른』을 出發해서 鯨灣方面으로向햇다。南極海와南太平洋에 잇는 모든捕鯨船들도『엘스워-스』로부터의 無線電話를바드려고 努力하고잇섯다。

그러나 이모든救援隊의 努力도水泡로도라가고말엇다。十二月도지나고 一月이되여도 何等의 端緒를 엇지못하엿다。『엘스워-스』와 操縱士인『하릿크·켠욘』은 맛침내南極의 不歸客이 되엿스리라고까지 생각하게되엿다。

그러든것이 맛침내 一月十七日『지스카바리-』二世號는『엘스워-스』로부터의 無線信號를 感受하고 그것으로써 同氏等이『바-드』의 根據地『리틀·아메리카』에 無事히잇다는것 더구나 南極大陸橫斷의 第一人者인 榮冠을獲得하엿다는것을 알게되엿다 그들은 南極點에서는 멀니떠러저잇스나 未測量의地域二千二百마일을 翔破하여서 極地探險大飛行의하로 헤아릴수잇는 業績을 낫타내엿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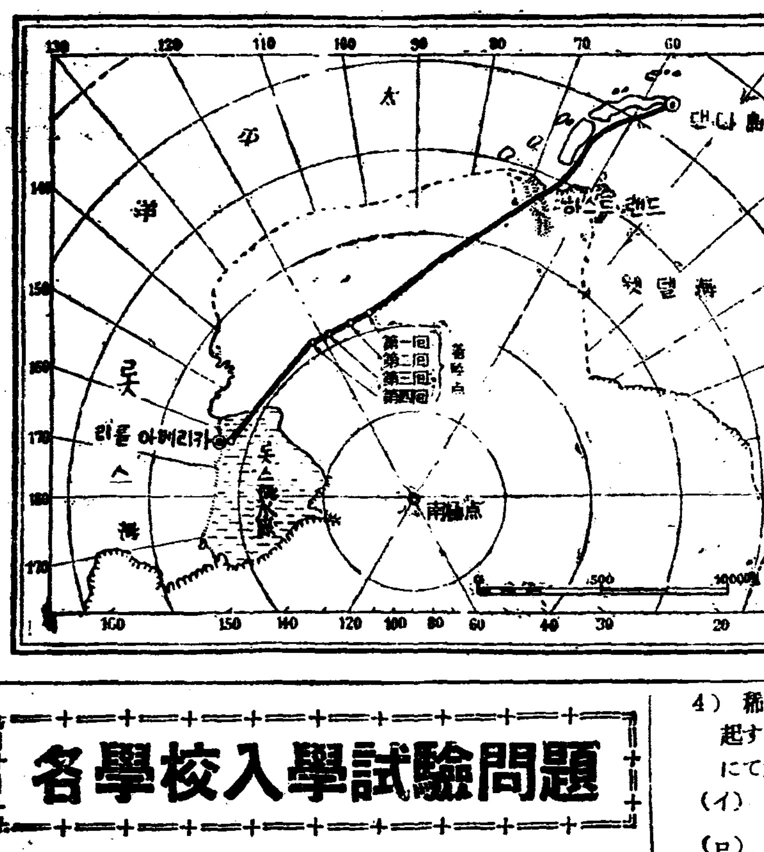
遭難의 顚末은 이러하다。

母艦과無線의 連絡이 떠러진뒤에 다시 五時間을 지나니까 眼界가막히는 때문에 다시 六千四百피-드의 놉히로·내리게되여 맛침내 어느高原에着陸하지아니치못하게되엿다。

翌日天氣가 晴明해지기를 기달려서 다시離陸하엿스나 三十分쯤가서 다시着陸하게되고 二十七日은 거기서 止滯하고 또다시날렷스나 五十分쯤 가서 이번에 暴風雨를만나 不得已着陸하야 거긔서 七日間이나 天氣의恢復을기달렷다。

그중三日間은猛雪을맛나기도하엿다。十二月四日맛침내 거긔를떠나 翌五日에『리틀·아메리카』가보일듯한 地點에와슬때 이번에는가솔링이 다된때문에 할수업시着陸하고 機體와 함께거긔서止滯하기 四日間後에 설매를 끌고서 徒步로 無事히『리틀·아메리카』까지到着하엿다。거긔서 비로소 無線裝置에드러가 信號를 내고서救援을 기다렷다고한다。

(寫眞은 엘스워-스博士가 探險한 南極大陸圖)



讀者社交室

▲一九三二年二月號『東光』雜誌(宋憲鎬主幹)를 讓渡하실분이 게시면 左記住所로나 또는 本欄社交室을 通하야 通知하야주십시요、代金으로 貳拾錢也를進呈하겟소이다。當雜誌를 直接本人宛으로 보내도 無妨함

咸北富寧公立普通學校 張正男

▲本人은 二十一才되는男子이온데 이 아프로寫眞技術을 習得코자합니다 或讀者諸位中 寫眞館經營하는이가게서서 本人을習生으로 붙려서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有意하신이면 左記住所로 直接通知해주서요

中和郡看東面看東市 趙炳七

▲日本內地에 發刊하는 (中古最近)書籍 무엇이고 愛讀하시려는분 往復葉書로 問議하여주시면 仔細通知하여드리겟습니다 二月十一日讀者社交室에 問議하시온데 卑葉書로 問議하시는분이 계시나 未安하오나通知를 드리지못하오니 널리諒解하심을 바라나니다

神戶市四番町四丁目 鄭灘波

▲左記의書籍을 要求하오니廉價로讓渡하실분은안계심잇가 萬若게시거든 左記住所로 通知하여주심을 千萬懇望하나이다

一、그女子의一生(李光洙氏作)
一、書 (同)
一、百枚講演Ⅱ一、二、三、?(合三冊)
一、處世道?

▲早稻田大學 法律講義錄이나 日本大學 通信法制學會서 發行하는 普通文官養成講義錄이 有하시는분계옵서는 前者를 廉價로 讓渡하시옵소서 左記住所로 寄別하여 주시기를 千萬要望하오이다

江原道通川郡廳內 金炳東

▲宋戚影氏에게 엽니다 弟는先生의二月一日附讀者社交欄에 記載하신을 贊成합니다 同志諸位會約을서 廣告하시고 同志를 求하심이 엇더하십닛가 直接相議하실말슴이 게시면 右記住所에까지 알려주시면 조켓습니다。

安東郡月谷面大東學院 李承乙

▲小生의게 바이오린 鐵木製 九號中古品(弓付)이 잇사오니 同價格의 멘도린이나 或은 키타 中古品과 交換하실분은 左記住所로通寄해주시요

慶南昌寧郡邑內 慶南醫院 宛

各學校入學試驗問題

普成專門學校

代數

(1) $x^2+x=\frac{1}{3}$ナルトキ$6x^4+15x^3+10x^2$ノ値ヲ求メヨ。

(2) 6ト16トノ間ニ二數ヲ插入シ初メノ三數ヲシテ等差級數ヲナサシメ後ノ三數ヲシテ等比級數ヲナサシメントス。二數ヲ求ム

(3) 上中下ノ林檎アリ。1圓ニツキ上ハ中ヨリモ4個少ナク,又3圓ニツキ下ハ中ヨリモ20個多ク買ヒ得ベシ。而シテ中1個ノ價ハ上下各1個ノ價ノ平均額ニ等シト云フ。中ハ1圓ニツキ幾個ヲ買ヒ得ベキカ。

京城藥學專門學校

國語

三、次の二句をよく味ひ、句の趣きに就き其の相違を比較說明せよ

甲 鍋洗ふ前に螢の二つ三つ

乙 鍋洗ふ前を螢の二つ三つ

四、(イ) 次の語句の片假名に漢字を當てよ

レンラク( )をハカ( )る
ギシ( )をヨウヘイ( )す
シウジツシヨサイ( )にヒキコモ( )る
コウム( )にアウシヤウ( )す
ゾク( )のキヨカイ( )をホバク( )す

(ロ) 次の漢字に片假名にて讀方を附せよ

蕭蕭 昔日 宇內 梗塞 打擲 紊亂 功德 結納 杜撰 逼迫 禪讓 由緒 旬刊 凡例 慰安

國語

一、次の文を平易に解釋せよ

海に忠事兩全し難くして、骨肉の私情さすがに忘ち易からざれど、學職の大學、云爲の先後、必ずしも辨じ難からず。何ぞ妄りに一身の安懇を冥冥の裏にのみ求むべしとせん。

二、次の文の中に認められる思想を說明せよ

八紘を掩ひて宇となし、德光をして 皆其の處を得しめ、混沌の世界に形態と秩序とを與へ、以て無窮に繁榮なる人類の福祉を增し、世界恒久の平和を顯現せんとするは、實に我が肇國の大精神であつて、我が國防の本義も亦之れが具現に在るのである

代數

(1) $x=\frac{1+\sqrt{-3}}{2}$ ナルトキ次式ノ値ヲ計算セヨ。

$2x^4-11x^3-7x^2-9x+14$

(2) 初項−56第22項−19ナル等差級數ハ第何番目ノ項ヨリ正數トナルカ又此ノ級數ノ初項ヨリ第何項マデノ和ガ始メテ正數トナルカ。

(3) $xy^n=a$ナル方程式ニ於テ$x=1$ナレバ$y=4$トナリ$x=\frac{8}{27}$ナレバ$y=9$ナリト云フn及ビaノ値各々如何。

(4) 三種ノ合金アリ 甲ハ銀7瓦銅3瓦 錫6瓦ノ割ニ混ジ乙ハ銀1.2瓦 銅0.8瓦 錫0.1瓦ノ割ニ混ジ丙ハ銀銅錫ノ比4:7:5ニ混ジタルモノアリ此ノ三種ヲ混ジテ 銀8瓦銅$3\frac{3}{4}$瓦 錫$4\frac{1}{4}$瓦ヨリ成ル合金ヲ得ントス各幾瓦ヅツヲ混ズベキカ。

化學

(I) 下記の物質に就き次の問ひに答へよ。

1) 名稱
2) 水に溶解するや否や
3) 水に依り化學變化を起すものあらば化學方程式にて示せ
4) 稀鹽酸に依り化學變化を起すものあらば化學方程式にて示せ。

(イ) Na_2CO_3
(ロ) KCn
(ハ) CH_3COOH
(ニ) $CaCO_3$
(ホ) Na
(ヘ) C_6H_6

(II) 1規定鹽酸溶液15ccを中和するに濃度不明の苛性ソーダ溶液22.5ccを要せり然らば此苛性ソーダ溶液1立は何瓦の 苛性ソーダを含有するや。但S=32, O=16, Na=23とす 小數第三位にて四捨五入すべし。

(III) 次の化學方程式を 完結せよ。

(イ) $NaCl+H_2SO_4+MnO_2$
(ロ) $NaOH+Cl_2=$
(ハ) $KBr+Cl_2=$
(ニ) $Cu+H_2SO_4=$
(ホ) $Fe_2(SO_4)_3+MaOH=$

(IIII) 次の物質の分子式を問ふ。

(イ) 酒精 (ロ) メタン
(ハ) 蟻酸 (ニ) クロヽホルム
(ホ) フオルムアルデヒド

英語

次の英文を和譯せよ。

1) Japan adopted almost entire the material side of the civilization of the Western nations and eagerly absorbed their sciences. But what took place, it should be carefully noted, was not a Europeanization of Japan. The new Japan was an evolution of the old. The Japanese to-day in their innermost life, in their deepest instincts, and in their modes of thought are still an oriental People.

2) Iron which is one of the hardest metals, becomes soft when heated. While soft, it can be beaten into almost any shape, but once cooled down, it becomes inflexible. The same is the case with opportunity, which must be improved as it comes, and which once lost cannot be recovered.

永生高等普通學校

國語 (其一)

一、左の文を讀んで次の問に答へよ。

拜復。眞心こもる御慰問狀並びに御慰問の品品をいたゞきまして誠に期難うございました。昨夜おそく江岸の警戒から歸つて來て、こほつた防寒衣をぬぎもあへず、繰返し繰返し拜見いたしました。數ならぬ者に、かくまでお心をおかけ下さいましてたゞたゞ感謝の外ありません。

1、『拜復』とはどんな事を意味するか。
2、これを書いた人はどのやうなところに居ると思ふか。
3、『ぬぎもあへず』とはどんなことか。
4、『數ならぬ者』とは誰をさしてゐるか。又何故此のやうに言ふか。
5、『かくまで』とは何を指してゐるのか。
6、――線の部分を解釋せよ。

答
1、
2、
3、
4、
5、
6、

二、左の文の――線の部分を解釋せよ。

1、王にして旣にかくの如し。鶴野の人々の如何に先生を敬慕せしかは推して知るべきなり。
2、人の子の道まさにかくの如くなるべし。
3、貴國にてはかねがね國民の心田開發に 御努力の事に候へば御希望の方も多かるべしと存ぜられ候。

答
1、
2、
3、

國語 (其二)

三、次の文に誤があつたらその部分を右側に書きなほせ。

1、一國文化の程度は其の國民が國法を守もる精神の厚薄によつて測ることが出來るといわれている。
2、發憤しては食を忘れ、樂んではうれいを忘れ、老の將に至らんとするを知らず。
3、富貴は人のねがう所なり。然れども正しき道によるに非されは我之に居らず。貧賤は人のゐとう所なり。然れども正しき道によるに非されは我之を去らず。

四 次の文中の片假名の部分を漢字で左の 番號(1)(2)(3)……の下にそれぞれ書け。

見渡す限り果もないゲンヤ(1)に ハウボク(2)の馬や牛いういうと草はむ。これは今日のあーくコウ(3)燈に類するものであつて エンガイロ(4)等のセウメイ(5)用としてはテキタウ(6)であるが 室內に使ふには 大仕掛で光力が强過ぎてジツヨウ(7)にてきしない。これ等のケツテン(8)のない電燈のシユツゲン(9)は當時の人人の最もキバウ(10)する所であつた。

(1) (2)
(3) (4)
(5) (6)
(7) (8)
(9) (10)

國語 (其三)

五、左の言葉を使つて短文を一つづつ作れ。

1、せめては
2、たまたま
3、そぞろに
4、せいぜい

算術

(1) 次ノ各式ヲ計算セヨ (運算、答)

(イ) 28×(29−24÷4)+7×143−118)
(ロ) 17.65−1.53÷0.09
(ハ) 4.05−(3.12−1.2)×0.5÷15
(ニ) $\frac{1}{3}-\frac{1}{4}+\frac{1}{5}-\frac{1}{6}$
(ホ) $1\frac{8}{9}\div\left\{2-\left(3\frac{1}{6}-12\frac{1}{3}\right)\times\frac{2}{15}\right\}$

(2) 甲乙兩人ガツレダツテ或ル地ニ旅行シ、二人分ノ汽車賃70錢ニ二人分ノ辨當代50錢トヲ甲ガ拂ヒ、二人分ノ自動車賃60錢ハ乙ガ拂ツタ。後デ兩人ノ損得ノナイヨウニスルニハドウスレバヨイカ(式、運算、答)

(3) 或ル仕事ヲ職工7人ガ8日カカツテ$\frac{1}{3}$ダケシタトキ働キガ元ノ職工ノ$\frac{4}{5}$ノ新シイ職工10人ガ代ツテ仕事ヲスルト殘リノ仕事ヲ仕上ゲルニハ幾日カカルカ。 (式,運算,答)

(4) 縱10cm,橫15.7cm,高サ12cmノ直方體ノ鋼ガアル。コレヲ切ロノ半徑ガ2cmノ圓イ棒ニ造リカヘルト長サハ何米ニナルカ。但シ造リカヘルタメニ體積ハ變ハラナイモノトス。 (式,運算,答)

(5) 買價3圓ノ品ニ ソノ2割5分ダケ高ク定價ヲ附ケテ定價ノ1割2分引ニ賣ルト幾ラノ損ガアルカ益ガアルカ。 (式,運算,答)

(6) 次ノ圖ニ 於イテ 小サナ正方形ノ 面積ガ1平方米アルトシテ (イ),(ロ),(ハ),(ニ), 各部分ノ面積ヲ計算セヨ。圖省略 (式,運算,答)

(イ)……
(ロ)……
(ハ)……
(ニ)……

義州公立高等普通學校

國語科 其一

一、次の文を讀んで後の問に答へよ。

我が國に襲來する颱風は、大體三種に分けることが出來る。第一は颱風と稱し六月から十月の間に、南洋のマリヤナ諸島附近に發生し、次第に北進して我が國を襲ふもので、其勢力は最も强烈である。颱風の進路は時期によつて異なる。六月頃は臺灣附近から支那の南部へ、七月頃になると沖繩諸島を經て朝鮮へ向ふが、八月、九月、十月には次第に東に移つて、九州•四國•本州方面を見舞ふやうになろう。次は每年六七月の頃、揚子江流域に相次いで發生し、徐々に東進して我が國へ向ふものである。其の勢力はさ程强くないが、本州や四國•九州地方に梅雨を降らせる。第三は冬期、蒙古或はシベリヤに發生して南滿洲を過ぎ、日本海に出て勢力を增し、東進して北海道•樺太•千島方面を襲ふもので、陸旋風と呼ばれ各地に烈しい吹雪を起す。

(1) 大陸旋風はどこに發生するか。答(
(2) 朝鮮を襲ふ颱風はどこに發生するか。答(
(3) 梅雨を降らせる襲風はどこに發生するか。答(
(4) 冬期の南滿洲の襲風を何と呼ぶか。答(
(5) 颱風は朝鮮をいつ頃襲ふか。答(

國語科 其二

二、次の文の片假名を漢字になほせ。

セイレイは朝鮮ソウトクがシンミンのゲンリギムその他國民セイクワツ上チユウエウなるジカウにつきチヨクサイを經てキテイせるものである。

三、次の語の右側にその讀みがなをつけよ。

淨域 獨自 絕望 境內 盤石 原則 門出 電信 青海原 地主

四、次の言葉を用ひて短文を一つづゝ作れ。

もともと
せいぜい

國語科 其三

五、左の文中に誤つたところがあれば直したのを右わきに書け。

1、我等は誓つて此の至誠に報ひなければならぬ。
2、滿洲ハ至ル所古戰場ナラヌハナイ。
3、大學は學術の蘊奥を研究する所たり。
4、國民の心田開發に盡力致居候

六、次の文中の〇のところに適當な漢字を入れよ。

〇〇官長は伊〇の國〇阪の人である。〇い頃から讀〇がすきで〇來〇間を以て身を立てたいと一心に勉〇してゐた。

算術科 其一

(1) (2)(3)ヲ計算セヨ。

(1) $24\div(4\frac{1}{2}+3+1.75\times\frac{2}{7}-1\frac{1}{3})$

(2) 1479÷{100−4482÷(9×6)}

(3) 365日5時48分46秒÷12=日 時 分 秒

算術科 其二

(4) 或仕事ヲ甲乙丙丁4人デスルニ甲ハ其ノ仕事ノ$\frac{2}{9}$乙ハ$\frac{4}{15}$丙ハ$\frac{1}{4}$ヲシタ。其ノ殘リヲ丁ガ仕上ゲタ。一番多ク仕事ヲシタノハ誰カ。

(5) 我ガ國ノ國旗ノ縱ノ長サハ橫ノ長サノ$\frac{2}{3}$デ日ノ丸ノ直徑ハ縱ノ長サノ$\frac{3}{5}$デアル。縱ガ80cmノ國旗ノ日ノ丸ノ面積ハイクラカ。又白イ所ノ面積ハイクラカ。

(6) 或人ガ財產19600圓ヲ三人ノ子ニ分ケルニ長子ノ分前ト次子ノ分前ノ比ハ4:3デ次子ノ分前ト末子ノ分前ノ比ハ9:5ニナルヤウニシタ。三人ノ分前ハ各イクラカ。

算術科 其三

(7) 元金240圓ニ對シ 50日間ノ利息ガ 2圓16錢デアルト日步ハ何錢何厘カ。

(8) 配當率ガ 1割2分ノ1株50圓ノ某株式ヲ105圓デ買フノト5分利公債ヲ額面100圓ニツキ 93圓デ買フノトハ利廻リハ何レガ得デ,其ノ差ハ何程カ。

(9) 人夫6人ガ 每日10時間働イテ 6日カカル仕事ヲ 8人ガ每日9時間働クト 幾日デ出來ルカ。

(10) 甲乙丙三ツノ數ガアル。甲乙ノ和ハ24, 乙丙ノ和ハ32, 甲丙ノ和ハ38デアル。各イクラカ

大邱公立高等普通學校

國語科 (一)

一、次ノ文ヲ讀ンデ左ノ問ニ答ヘナサイ。

汽車は密林の間をあへぎあへぎ通り拔けて、やがてトンネルにはいる。しばらく暗黑の中を通つて再び光明の世界に出た時、突如として眼前に展開せられた風景は、雄大といはうか豪壯といはうか、恐らく全道第一の壯觀であらう。右手には遠く日高嶺の山山が大浪のやうに連なり眼下には廣漠とした十勝の大平野がはるばると續いて、末は靑い大空に接してゐる。汽車は無人の境を曲折して下る。雲がけるが如く美しき山の、或は右に或は左に現れるのは、サホロ嶽の連峰の一つであらう。はるかの下に一條の白煙をたなびかせて見えがくれする上り列車は、ちようどおもちやのやうに見える。

問

1、『あへぎあへぎ』トハドンナ意味デスカ。又ナゼ『あへぎあへぎ』ト書イテアルノデスカ。
2、『眼前に展開せられた風景』ハ何何デスカ。
3、『全道』トハドウイフ意味デスカ。
4、『雄大豪壯』ノ風景ヲアラハシテアル所ハ、コノ文ノドコデスカ。其ノ右側ニ線ヲ引キナサイ
5、『上り列車』トハドンナ意味デスカ。又作者ノ乘ツテヰル汽車ハ上リ列車デスカ、下リ列車デスカ。

二、次ノ御製及文章ヲ分リ易ク解釋シナサイ。

(イ) よきを取りあしきを捨てて とつ國に おとらぬ國となすよしもがな
(ロ) 彼の稀代の天才はこゝにも遺憾なく發揮されて、着着、成功の域に進んだ。

三、次ノ語ニ振假名ヲツケナサイ

(イ)海原 (ロ)眞直 (ハ)屛風
(ニ)不朽 (ホ)慎重 (ヘ)恭しく
(ト)操る (チ)物語る (リ)專ら
(ヌ)補ふ

四、次ノ文中傍線ヲ引イタ片假名ノ所ヲ漢字ニ改メナサイ。

(イ) キヨウ( )な手つきでミカン( )を探つてゐる。
(ロ) ガイジヤウ( )でも、よく ケイクワン( )の指揮に從つて、コンラン( )することがない。
(ハ) タガヤ( )すにも、うねを作るにも、種を マ( )くにも、大てい キカイ( )と馬の力による。
(ニ) はるかにコンジヤウ( )の空に ソビ( )えて雪をいたゞくアルプの連峰。

國語科 (二)

一、次ノ漢字ノ上カ下カニ漢字ヲツケテ一ツヅツノ熟語ヲ作リナサイ。

(イ) 序 (ロ) 孫
(ハ) 制 (ニ) 感
(ホ) 模 (ヘ) 値
(ト) 戴 (チ) 儀
(リ) 激 (ヌ) 欄

二、次ノ語ヲ用ヒテ各各短文ヲ作リナサイ。

(イ) 暗示 (ロ) 眼鏡
(ハ) けなげ (ニ) さすがに
(ホ) さながら

三、綴方 文題『雪』

注意 1、文體ハ口語體。
2、假名ハ平假名
3、用紙ハ別紙ニ書キナサイ。

黃昏 【57】

韓雪野 作
安夕影 畫

피서(避暑)(五)

그다음 편지사연은 이러하다

『저는 오늘 서왕사로 왓습니다.

놉흔 소나무ㅅ가지ㅅ사이로, 칠월의 찌지는 햇발이 길게 드리운, 금모래판가튼, 역전의 풍경이 매우 조화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단청(丹靑)이 지른 옛사찰의 고아(古雅)한 맛이 더욱 조화습니다. 모든 것이 삼방협에 비하면, 훨신 개화한것 갓습니다. 『우리에게 잇서서는, 자연은, 한개의 점토(粘土)라는」고한 말도 잇거니와, 이피서지도, 장래에는 사람들의 손끝리에서 놀라운 현대풍경으로 변하여지겟지요.

저는 가파른 뒷산 송림속으로, 길업는길을 차자 허매고 잇습니다. 그리며 이편지를 토막 토막 추어여고 잇습니다. 과연 조혼 자연입니다. 잔잔흐르는 야튼 시내ㅅ물이, 발길에 밟혀너머지는 풀야 막히어, 마치 봉어색기가 번뒤속에 파묻혀사람, 중생가티 나무ㅅ가지로 기여다니는사람, 한다리를 들고 한다리로서사람들을. 그리고 유변의 수도와고행에서 빼만남은 석가를 내ㅅ물에 목욕하고 촌색시의 우유를 바다마시든 그를. 그리고 원정흑의(圓頂黑衣)의아난(阿難)에게 반한 촌색시를 그때놉 사랑하는 어머니가소똥에 불붓부처 마귀를 불러가지고 아난을 제집에 감금하는것을 아난이 석가에게구출되는것을 머리깍고 절로아난을 차자오는 촌색시를...... 그리고 촌색시를 설교하든석가여래를 생각햇습니다만 저도 종교로서의 불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흥미도 미혹도 느끼지못합니다.

다만 사람은 괴롬을 격거봐야 한다든 경재씨 의 말을 생각하며 생내 처음으로 험한 산중을 혼자 걸어다닙니다. 조곰도괴롬을 깨닷지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불시에 이런생각을 또해봣습니다. 『불ㅅ도 치는것가티 번적하고 빗납니다. 얼른 발을 들면풀은 다시 머리를 처들고, 물은 씻기고 씻긴 허이연 돌우호로 그리고 두언덕의 풀과 풀이 머리를 맛대인 그아래로 마치 비단가튼 부드러운 파문을 지으며 졸졸 흘러감니다. 톨스토이는, 고가삭지방에서, 밟혀도 밟혀도 머리를 처드는 풀을 보고 유명한 력사소설「하지무라드」를 썻다하고, 굴원이는 참소(讒訴)에 더러힌 몸을 멱라수에 더저다하거니와, 비록제게는 그러한 뜻과재간이 업다하더라도, 언제까지든지, 이곳에 안저 이풀, 이물과함께 속새여보고 십습니다. 그러면 누가 차자올것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게는 깃뿐일이요 동시에 설은일이외다.

채는 점으렷습니다. 우렁찬잉경소리가 땅을 울리고, 산을 흔들고, 그리고 한울에 사모칩니다. 저는 문득, 아름다운 혜은안해를 버리고, 궁사극치의 삼시전(三時殿)을 등지고 출가하든 석가여래를 생각햇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금관옥의를 떨더리고, 바라쳐의 허전한몸으로 심산중에 선인을 자자, 그제자들의고행(苦行)을 바라보든 그광경을 그리여보앗습니다. 벍어버슨몸에 손똥질한사람, 외쪽일 남국의 햇햇한 태양을 눈삽바하지안코 바라보고잇는사람, 목까지 땅는 사자가 그색기를 입에물고 산꼴재기로 뛰여넘는것갓다는 말을。 너무 단단히 물면, 색기는 물여죽을것이요, 너무 개벼게물면 끌재기에 떠러저죽을것입니다。 떠러지지도 안코 물여죽지도 안케하는것이 말하자면 불교의 정신과 갓다는말이겟지요。

그러나 기왕 죽이지안흐면 안될 그런경우라면, 물어죽이더라도 제입에 길이 물고잇기십흔것이 인정일것입니다。 저는 그인정을 결코 그르다고 생각지못합니다。제입에、제손에、제맘에 가젓든 자기의보배를 목숨이잇는 한에야 어찌 일허바리겟습니까。하물며 어찌 빼앗기고 말겟습니까? 차라리 죽여버리고 말지언정......

경재씨!

깨긋한 이강산에 와서 너무 만히 속된 감상을 적어보내와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속임업는 저의 심경이오니 용서하고 보아주실줄 밋습니다』

그러나경재는 두번 편지를밧고도 회답을 쓰라고 하지안헛다。

현옥이가 이곳 저곳으로 옴겨다니는것이 자기의답장 안주는 구실을만들어주리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그라고잇든 어느날도 편지한장이 왓다。이번은 우표두장이 부튼、전보다도 더두터운편지다。

大코필드 바지니아·부루스가하얀天幕의밤에로 면눈을 얽고·뭥내는 땅 이것은메트로의·로바드 레나드監督의 新作映畫로 壯麗한一場面의스나프。

라듸오

八日(水曜)

◇午後六時하모니카二重奏와獨奏 一、수리의집 이센맨作曲 二、銀波 위이맨作曲 三、카르멘拔萃曲(星在獨奏)비제-作曲…… 四、軍艦行進曲 瀨戶口藤吉作曲 崔影雲 崔星在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 ―(全國中繼)―『朝鮮의野談에 對하야』 今村鞆

◇同七時三〇分 講演『宗敎와人』 朴允進

◇同八時 새타령外 一、報念 二、새타령 三、六字백이 四、개고리打令 五、興打令 金蘭首 朴綠珠 朴鍾基

◇同八時三〇分 大笒 一、小夜曲…토젤리作曲 二、蓮꽃 三、아름다운그대 四、달밤…슈-망作曲 五、보람업는 小夜曲…브-ㅁ스作曲 六、頌歌…사포作曲 七、마리아의자장가…레-가作曲 獨唱 鈴木美佐保

◇同九時 歌詞 一、將進曲 二、春眠曲 피아노伴奏 李興烈 大笒 杖鼓 趙点紅 徐山玉 金永根 金一宇

第一放送

◇午後六時(東)偉人物語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名)經典物語
◇同八時三五分(東)未定
◇同九時(東)管絃樂

九日(木曜)

◇午後〇時〇五分 時調外 一、時調 가、平時調 나、지름 다、사설時調 二、平調會像 三、山念佛 時調와洋琴 李承煥 短簫 崔壽成 奚琴 金德鎭

◇同三時一五分 春節三題(一) 꽃이야기 李王職植物園 金令淵

◇同六時 라듸오風景『離破船』一景(配役) 돌이…孫九文 옥분…劉楹香 船長…南雲 水夫…柳河景 其他多數 出演 京城放送兒童劇硏究會 脚色及演出 南基薰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新聞과插畫이야기』 伴奏 劉永愛 解說 閔際植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一) 金奎澤

◇同八時 리별가사 一、리별가 二、노들강변 三、밀양아리랑 四、어랑타령 五、노래가락 金雄珏 林明月 細笛 姜鶴洙 奚琴 李忠善

◇同八時三〇分 라듸오 드라마『吳越同舟』(配役) 孟虎鳳…吉七 孟朱明…金水 白鶴…金紳英 海雲 朴大進…李流星 放送劇新人會 指揮 李如水 效果 朴松

◇同九時 伽倻琴散調와竝唱 一、散調 (가)중모리 (나)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滄浪歌』(나)唱劇調『赤壁歌』 姜太弘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東)家庭講座
◇午後〇時五分(東)라듸오·코에듸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名)少年講談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時(同)꽃巡禮
◇同八時一五分(東)東京舍
◇同九時五分(同)歌謠曲

十日(金曜)

◇午後〇時〇五分 맨돌린合奏 一、꽃에게 高橋맨돌린·앙상블 二、꽃의小品두個 (가)西班牙의꽃…제네스코作 (나)장미의향고…뭇데르作 三、안되나스의꽃 조반니作

◇同三時一五分 春節三題(二)『새이야기』 李秉岐

◇同四時 京城藥專合格者發表

◇同六時 勇敢한少女 秦金星

◇同六時二五分 講演『植物과人生』 李軒求

◇同七時三〇分 農村講座(二)『養鷄와育雛』 金雄珏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월레、켐프

◇同八時三五分 楚漢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楚漢歌 四、寧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鈴 金玉仙 細笛 高裁德 短簫 崔壽成

◇同九時 野談『白燕』 申鼎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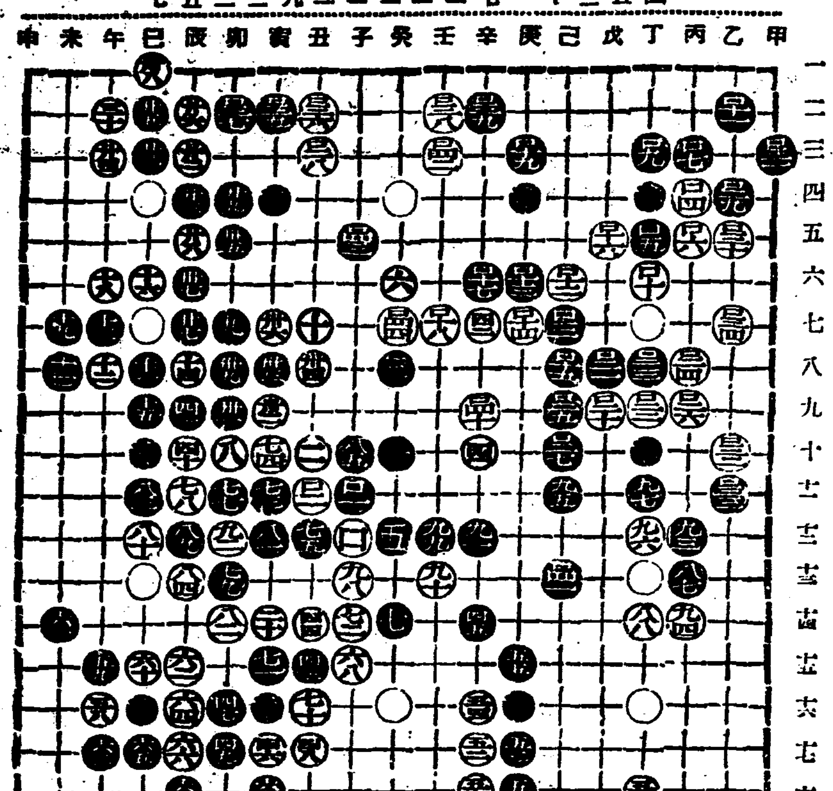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大)家庭講座
◇午後〇時〇五分(大)時事小唄와豆漫談
◇同二時 (東)婦人의時間
◇同四時 京城藥專合格者發表
◇同四時二五分 럭비實況中繼(早大—全普專)
◇同六時二五分 (東)어린이新聞
◇同六時二五分 (札)農家의時間
◇同六和 카렌트토픽
◇同七時 (東)講演
◇同八時 (東)피아노獨奏
◇同八時三五分 (東)東明節
◇同八時五〇分 (東)鄕土舞踊과俚謠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9=

白 蔡極文
黑先 柳鎭河

●二九 乙의四
○三〇 乙의五
●三一 甲의三
○三二 乙의十
●三三 乙의十一
○三四 乙의七
●三五 寅의二
○三六 丑의二
●三七 卯의二
○三八 壬의二
●三九 辛의二
○四〇 辛의九
●四一 己의十三
○四二 壬의三
●四三 子의五
○四四 癸의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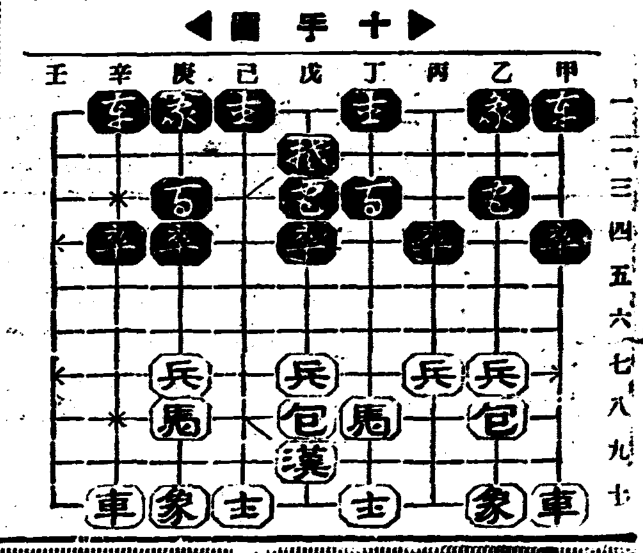


◆對局者談 黑이 乙의 四로 白一點打取함도 相當하지만·乙의 六으로 彎中을 하고 乙의 七로 延한후 白一點斷取함이 弱일듯 白이 寅의 三으로 寅의 二를 斷取하면 黑이 子의 三挾盡함을 畏憚함이다 白이 辛의 九로 一點을 連하야 黑手를 取함도 利益이 現著하고 黑子의 五를 癸의 七로 斷함도 亦是相當일듯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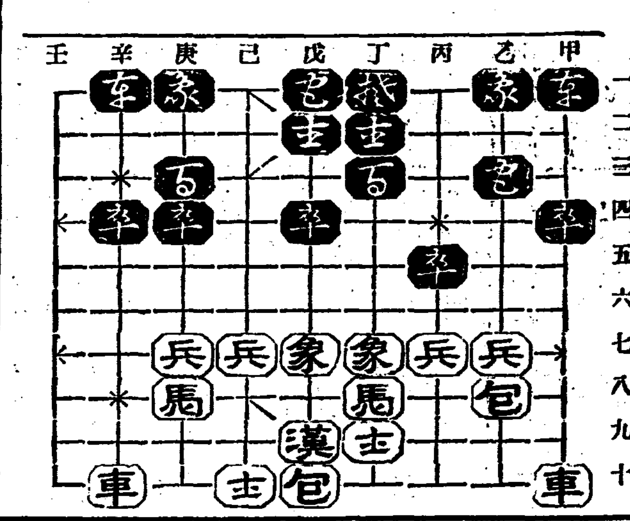
手先漢 一兵 李在風 對 李明輝

◀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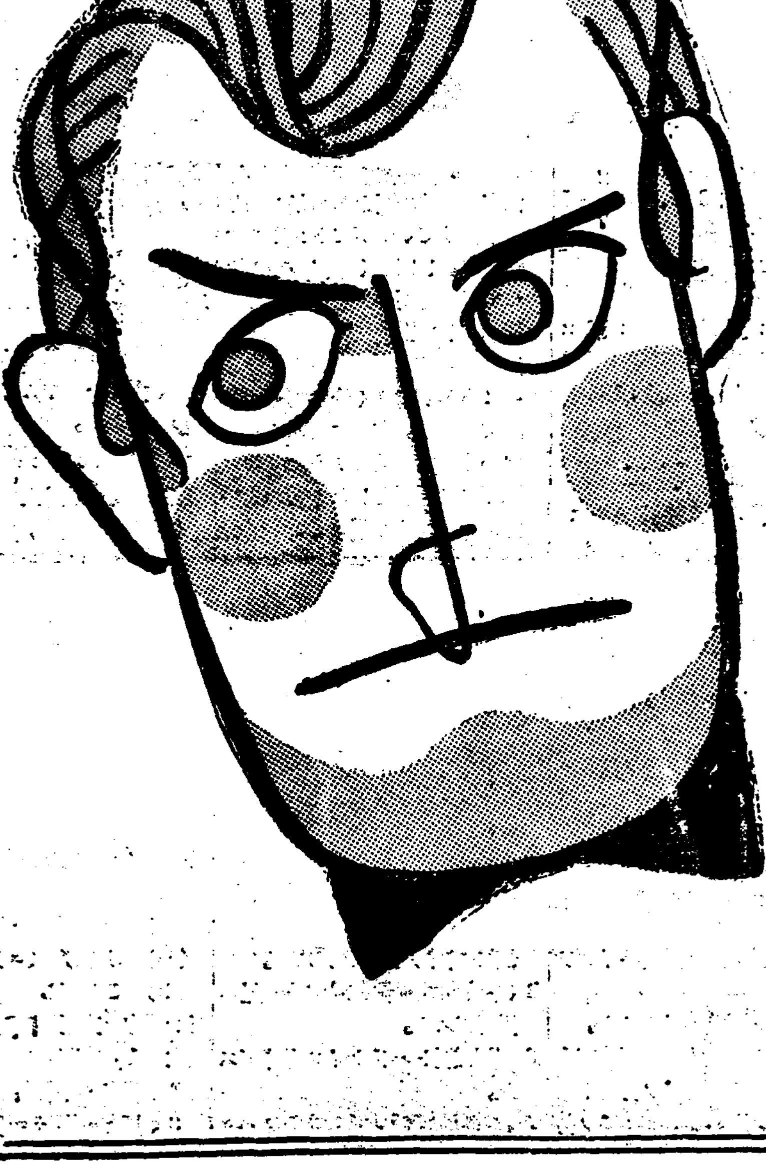
◀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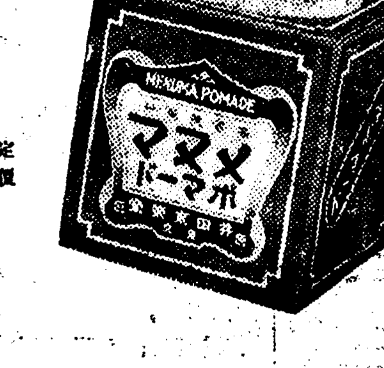
乙十象—丁七 丁二●—丁三 戊七兵—己七 戊二●—丁一 庚十象—戊七 丙四●—丙五 丁十士—丁九 己二●—戊二 戊八包—戊十 戊三●—戊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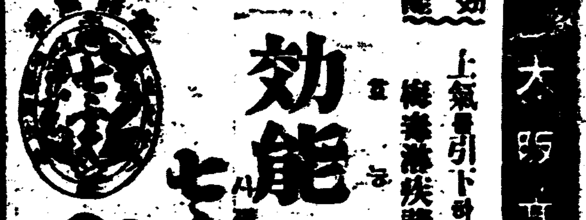
◆曆◆ 四月九日(木) 三月廿壬辰小(十八日) 辛酉·木·斗·執
●祭祀에宜함
●淸明四月五日(舊十四日)
●穀雨四月二十日(舊二十九日)

萬人必侶
氣品잇는禮容으로
整齊하시려면!
반드시
整髮에메누마를
쓰시라!
メヌマポマード (메누마포마-도)
끈적이지안코·芳香妙美
번들번들안코·洗髮容易





定價 特大瓶 一·二〇 大瓶 ·七〇 小瓶 ·五〇 新小瓶 ·三五
東京 大阪 井田京榮堂
MP—33



効能で賣れる
七ふく ひえぐすり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주며 梅毒淋疾痔疾을除하는
大阪高津表門筋 本家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 電南七二九

八日特別大公開(晝夜三回)
久しく待たれた舞踊界の明星半島の生んだ吾等が崔承喜の主演する彼女の悲しくも雄雄しき半生の記錄!!
內地六大都市と同時封切の壯擧を是非!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新興キネマ本年度超特作現代劇
原作 湯淺克衛 監督 今日出海 第一回作
オール・トーキー
半島の舞姬
舞踊界の明星 崔承喜孃 主演
千田是也·薄田研二·大友壯之介·江川なほみ·御影公子·菅井一郎·澤田ます代·田中筆子·野邊かほる。助演舞踊界の天才崔承喜が戀と淚に綴る半生の情炎記錄! 若人の胸は妖しくも戰くであらう! 甘美な音樂と舞踊の交響新興キネマ本年度傑作
寬プロ新春超特級時代劇 原作 故佐佐木味津三 脚色 竹井諒 監督 山本松男 オール、サウンド
右門捕物帖 晴晴五十三次 前後大會
嵐寬壽郞 主演 嵐德三郎、白石明子、森光子、泉清子、外寬プロ一同出演
永樂町 電本②二一一 中央館

四月九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日曜祭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三十分始映
獨逸우파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世界의驚異F·P·一號의正體?
F·P·一號應答업다
監督……가-루하-틀氏 主演……한스알버스氏 시빌슈밋스孃
大西洋飛行未來記
空中과男性的スペクタクル! 大洋上의大飛行場!이거야말로科學文明의理想이다今日이야明日아아두려워하는某國의손이것이完成하다면?其他의某國은이것이妨害의손에걸니지안을까? コロッパ大陸에서南米利加大陸까지空中旅行할때? 佛國오조우社超特作全發聲版
戰爭活劇 無名戰死
監督…스도리트·제후스키氏 主演…이완모츄비氏 스지이부엘는孃
◇모록코外人部隊의哀愁!嗚咽하는喇叭소래!異國과異시이에사랑!아라부族이大襲擊!自己生命을求하기爲하야몸붓찬는幼兒!!砂場을獨立한援兵!!先頭에는流血을흘니는無名戰士果然?
朝日世界ニュース 一卷
國產漫畫 一卷
次週—逆襲、生命의雜音
麻浦桃花洞 電龍三三番 浪花劇場

四月七日부터晝夜二回
喜劇座第三週
正喜劇 벙어리냉가슴 一幕
獨腳 作
沈默은美德이다。한개의眞實은百마듸의辯明보다優하다。보라가난하면서도 직힐바를 직히는者의아름다운生活을! 눈물속에숨은歡喜를!
金健 作
喜劇 빗쟁이退治法 二場
봄놀딸아 바람둥이들은亂舞한다。歡喜와悅樂뒤에오는따분한危機에直面한그들은果然엇더한흐락크로局面을打開하라는지—
主演 孫一平、金元浩、李景希 南方雪、石臥佛
喜劇座文藝部案
댄스 엉터리世界行進 四景
主演…金元浩、李正順其他數名
李雲芳作
處女나희열일곱살 一幕
小品스켓취 一景
●五月上旬裴龜子樂劇團來演
●四月中娘娘座(樂劇團)公演
西大門通 電光③二一五四 東洋劇場

被告全部審理終了 最高五年役을求刑

注目되는言渡는오는十四日

安邊赤農公判續報

【元山】안변적색농민조합재건위원회(安邊赤農再建委員會)사건의 치안유지법위반 피고 김광윤(金光允)(三五)등 십사명에대한 제이회 속행공판은 칠일오전십일시 십분부터 원산지방법원법정에서 대서(大西)판사의 단독심리와 사전(寺田)검사 김종규(金宗奎)변호사의 립회로 개정되엿다 병으로 보석중인 리규운(李奎運)외는 피고전부가 출정하얏다 먼저 한병건(韓炳乾)으로부터 시작하야 한계간(韓桂簡)까지의심리를 간단히 맛친후 안변금융조합에잇서서 적농조직의 전제로 조직된 안변오인조(安邊五人組B)및 룡천사인조(湧川三人組B)의 지도책이라는 박재순(朴在順)의 심리에 들어가 서 공산주의에 공명한동긔와 농조조직논에 대한 응답이잇슨후안변오인조 조직경로를 물음에피고는 조직사실을 부인하얏다

"판사" 경찰조서에는 조직햇다고하지안햇나?

"피고" 그것은 경찰이 임의 인정한것이지 사실은 다섯사람이 모여서 의론한데 불과하오

"판사" 다른피고는 다 시인하지안는가?

"피고" 그것은 경찰이 자유의사를 억압하고 임의인정한것이지 사실은 조직하지안엇소

이상과가튼 심문이잇슨후 동천사인조에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을 시인하얏다 그리고룡천서 유치장에서 처(妻)김정윤(金貞允)을 통하야 의복속에 통신적농재조직 지령을 김운기(金雲基)에게 발한사실을물음에피고는 김운기에게 자기가 피검된사실을 신문과자에게 알려달라는 부탁이라고사실을 부인하얏다 이상심리로 의 심리가끗난후 오후한시경에 일단휴정하얏다가 오후두시에 심문에 속개하고 김금덕(金今德)전봉집(全鳳集)오계윤(吳桂允)김형채(金炯米)안윤홍(安允弘)등을 일사천리로 심리한 다음 법정소동을 일으키는김운기(金雲基)를 마즈막으로 심문하엿다 고성(高城)농조조직에 관한것과 김광윤과의 련락및 피검동지가족의 구원등 심문에 모다 부인하얏다

"판사" 리락구(李洛九)를 방문한것은 무슨리유인가?

"피고" 원산으로 가는도중김광윤의 소개로서 알기때문에 하로밤 못숙하얏슬뿐 별일업섯소

"판사" 리락구와 어떠한 일을 의론하엿는가?

"피고" 별로 이약이한바업소

"판사" 그러면 무슨일로 양복점에는 리락구가 받은것은 김종경의(宛)으로하고 비밀사항은봉(封)로 기재하고 욱도 정기를발라서 발연키로한 리유는?

"피고" 그것은 락구가 그러케하라구한것임으로 나는 몰으오

"판사" 서신왕래에 고성(高城)에서할때는 송(送)이라하고 안변에서 보내는것은 (田)이라고쓴것은 비밀을 직히기위함이안인가?

"피고" 그것도 락구가 그러케하라고한것이지 나는몰은다고 사실전부를 부인하얏는데 이로서 피고십사명에대한 심리를 맛치고 사전검사로부터 주엄한론고와 최고 오년 최하일년반의 구형이 다음과가티 잇슨후 렬석한 김종규(金宗奎)변호사로부터 변론이잇슨다음 오후다섯시에 폐정하얏다 판결언도는 오는십사일이라는데 일반은 그판결을 주목한다

◇求刑—李奎運 金光允 朴在順 金雲基各懲役五年▲韓炳乾 姜濟德各四年▲金今德三年▲韓桂簡 全鳳集 安允弘 金文生 金炯米 吳桂允各二年▲金弘相一年半

待望의平北女高普 認可로開校準備

十三、四日頃生徒募集

【新義州】다년간 현안으로 그간 긔부금모집중에잇든 신의주녀자고등보통학교(女高普)는 그부금의 완납과 동시에 지난륙일부로 인가(認可)되엿슴으로 금명간 교장과 교유의 임명이잇스리라는데 도학무과에서는 방금 개교준비에 총망중이며 입학시험(試驗)은 오는 십삼、사일경에 잇스리라는데 교사는신축하기까지 고녀(高女)의 공실을비려 수업하기로 되엿다 한다

江界商務會定總

【江界】제삼십팔회강계상무회정긔총회(第三十八回江界商務會定期總會)는 지난륙일오후세시이십분 본회관내에서 회장 한봉민(韓奉珉)씨사회로 개회한바 회원점명과 회록랑독이잇슨후 회사경과보고(會事經過報告)회계보고 양성유치원회계보고(養性幼稚園會計報告)와및 감사보고(監事報告)가끗나고 제안심의(提案審議)와 토의에들어가 회측수정건 호상제도(護喪制度)폐지건등을 결의하고 오후오시십오분에 폐회하엿다한다

平壤府總人口(昨年末) 十七萬名을突破

朝鮮第二位도멀지안은將來로

釜山—平壤—七千五百

【平壤】조선재이위의 도시에대해서는 일상평양부와 부산부사이에서 승강되고잇는데 부서운형세로 발전하고잇는 평양이언제나 부산을 이길수잇는가 는 흥미잇는 문제로 작년말 평양부의 총호수 삼만사천칠백 팔십팔호 인구 십칠만 이천칠백 사십륙인이어서 부산보다 호수 일천오백륙십칠호 인구 칠천오백이십오인이 각기적어서 결국부산이 조선재이위로 되엿다

그러나 평양은 군대방면을전연계산치안허 실질에잇서서 부산과 대차가 업게고 금후계획중인 부행정구역 확장이 실현되는때에는 부산을 훨신뛰여넘을것이라한다

私立中等學校巡禮 13

信聖學校

三十年前設立의 平北中等校嚆矢

他校에遜色업는設置

신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삼십여년전 경자년사월에 설립되여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잇는 학교이다 당시 평북지방에는 학교가 업섯슬뿐만아니라 삼천리강산에도 신학문이 수입되지 얼마오래지 안엇스며 따라 일반이 그신학문인 학교교육을 잘 리해키도 못하엿슬뿐만 안이라 한래하는사람조차 적지안튼 그때 고 양전백 노정관(梁甸伯 魯晶瓘)씨와 김석창씨의 발긔로긔독주의하에 선천승회는 면목으로 선천읍교회를 조직하고동 선천에 선천읍 남교회를 빌려가지고 신성학교의 개교식을 거행하엿다 당시 입학된 생도수는 불과이십륙명밧게 안되엿다 고한다

그래 긔본재산이 업시 설립된 학교이니만치 경제곤란이심하엿슬것은 물론이어니와 기타 모-든방면에 곤난도 적지안어섯든바 긔유년에 미국자선가 「휴오니일」이라는 일개녀사로부터 양신만원의 긔부금을어더 이로서 토지전삼만구십육정보를 매수하여 긔본재산을 만드는일방 이층건물 교사한채와 긔숙사한채를 건축하고 동구월에 신교사로 이전하여 학교의 면목을 일신케한후 이에 활긔를 어더 각방면으로 활동한결과 다시금 긔숙사를 증축하고 경제상곤난으로 공부못하는 고학생을 위하야 목축과 공업소 등을 설치하여 그들의 타는가슴을 헤치고 능히공부할긔회를 주고잇섯다

그후 미국에서 다시금 칠만사천여원의 긔부금을 모집하야 보낸 금액으로 소화삼년에는 오만오천원의 공비로서 연와 삼층의 웅대한 신교사를 건축하얏고 동륙년에 조선총독부의 지정인가를 어덧스며 또한 이만여원의 물리화학실험실과 박물표본실을 설비하고 다시금 일만일천원의 공비를 드려 대강당을 신축하엿다。

이로써 전조선 어느중등학교에도 손색이 조금도 업스리만한 완전한 중등학교가되엿다。

이러한 력사를 가진 신성학교에서는 과거 삼십여년간 관서지방과 삼천리강산에 오백륙십팔명의 피가 끓는 씩씩한 청년일꾼을 보내엿스며 지금도 여전히 파릇한 운동장과 웅대한 교사에서 매일매일 우리네 일군을 배양시키고 잇다 앞으로도 보다더 조흔 일꾼 보다더 나흔 인재를 만히 우리네 강산에 보내주기를 바란다。

▲在籍生 三四三名▲敎員 十四名▲現校長 張利郁

(宣川支局 一記者)

◇寫眞……信聖學校校舍와 現校長 張利郁氏

私立聖德學院 校舍新築起工

【公州】루보=충남공주군반포면 성덕리(公州郡反浦面聖德里)에거주하는 청년심재승(沈載昇)씨가 경영하는 성덕학원(聖德學院)은 삼만원재단법인으로 사립보통학교승격운동을 진행중이라함은 루차보도한바어니와전긔 심재승(沈載昇)씨는 만여원재산을 그학원에내여노코 금춘내에 교사신축공사를 준비중이든바 경성부익선동(京城府益善洞)에 거주하는 부호김진섭(金鎭燮)씨는 전긔성덕리에잇는 소유토지의 천여평 되는밧(田)한필을 전긔학원의긔지로 제공하얏다는바 그학원신축공사는 긔지장외에 삼천여원 공사비로 지난사월에 공사에착수하엿는데 오월말일경에는 준공이 되리라한다 심재승씨가 경제상 희생을 바치고도 학원이 경영난이라는 소식을들은 외당면금광리(畓里)에 살고잇는 전긔김씨 종중에서도 학원재단의성조달에 대하야 의론이자자하다고 한다

地下勞働者에威脅

平南道內鑛山事故 死傷者千十五名

生命의代價란一人압四十圓

道保安課서嚴重警告

【平壤】평남일대에는 구십오개처의 광산이잇서 광부의 총수는 일만륙천이백사십팔명에달하는데 광산과탄광의시설불충분으로인하여 사고는 속출하여 작년일년중에도 일천십삼건의 사고를 내이어 사망자 오십이명 중상자구백륙십삼명을 내이게되엿다

이때문에 도보안과에서는 광산 또는 탄광경영당국에 향하여 사고방지에대한 엄중한 통첩을 발햇스나 의연사고는 증가만하는 현상이므로 최근광산경영책임자전부를 평양에 소집하여다가 사고방지에대한 좌담회(座談會)를 개최하여 금후의 참고재료를 만들기로 되엿고 이와동시에 소(蘇)보안과장은 자신이 직접 사고만히내이는 광산、탄광을 실지답사하여 금후경고의 재료를 채집키로되엿다

또한작년중 일천십오인의 사상자유족에게 지불한 조위금은 겨우 사만사천사백칠십원으로사망자한명의 조위금이 사십사원평균이라는 비인도에갓가운액수이므로 여기에대해서도 도보안과에서는 영업주에게 조위금을 증가토록 통첩을발하는외에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사천사백륙십륙명에게는 우편국과 저후하여간이생명(簡易生命)에 가입하도록 방법을 강구키로 되엿스나 원체가 칠십전내지 팔십전의 일급을밧는 광부로서 보험료를지불키 곤난한현상이므로 경영자로도여기에 대한 고려를 식히게하엿다한다

第六回全朝鮮 自轉車競技大會

本社平壤支局後援下에

來四月十八、九兩日間

【平壤】평양륜업조합에서는 본사평양지국 후원으로 오는 십팔구량일간 부내림리 공설『그라운드』에서 제륙회전조선자전거경기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하고 목하 준비에 분망중이다

이번대회에는 참가선수나 기술방면의 경이적 발전을 볼것이며 금춘 평양부내의 전반운동계를 『리-드』하는 최초의 대회인만큼 인긔는 비상히놉하지되여 대회개최일을 기다리고잇다

力技大會開催

【營口】구일오후칠시에 당지 조선인회관(朝鮮人會館)에서 유수한 력기가 정영진(力技家鄭榮鎭)씨의 력기대회가 열린다는데 당지민회에서주최하는것이라한다

開城"高靑"主催 全朝鮮力技大會

【開城】사월십팔일 개성고려청년회(開城高麗靑年會)체육부 주최로 제삼회전조선력기대회(全鮮力技大會)를개최하리라는데 지방선수로 입상한분에겐 차비를제공하는특전이 잇다는바 만히참가해주기를바란다고한다

規定

一、場所 本會館大講堂

一、選手申込期日四月十五日까지

一、賞品 輕輕級 輕級 中體級으로分하야 各各一、二、三等까지

一、申込金 二十錢

宿題의咸南北、江

三道水産組聯合會

◇……五月中에는設立케될터

初年事業費十二萬圓

【咸興】수산도로서 서로밀접한 관계를 가지고보는 함남 함북 강원(江原)의 삼도수산조합련합회는 그리해관계에 잇서서 또한 영업상 가장요망하고잇든 문제이든바 최근에 이르러 그운동이 구체화하야 오월중순경에는 설립의 서광을 보게되리라는데 초년도사업비는 약십이만원정도라고한다

僧侶詐欺行脚

【開城】장단군진서면(長湍郡津西面) 화장사(華藏寺)중 박여진(朴汝鎭)은 지난삼월부터 개성부내경정(府內京町)오백칠번지 림금례(林今禮)란 부녀를 차저와서 금번은 악역(惡疫)이류행할것이니 방액을 하여야 된다고 『부작마불』치면 재앙을 면한다고 속이어 현금일원 삼십전을 밧어먹은사실이 개성서에 탐지되자 어데론지 도망을 갓다는데 이자는 전긔와가튼수단으로 우매한부녀들을 만히속이여 금품을 빼앗고 잇다고한다

平壤

第六回全朝鮮 自轉車競技大會

▲日時 四月十八、九兩日午前九時

▲場所 『平壤箕林里公設그라운드』

◇主催 平壤輪業組合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山中"깽"松蟲繁殖 松岳山林에危機

關係當局에서는하로라도밧비

適當한驅除實施要望

【開城】울창해가는 개성송악산(松岳山)이 작년도엔 송충이위협으로 밥문이나 잔닙을 당햇스나 이래당국에서 하등의 구제책을 실행치안허 작년에 란산(卵産)한 유충(幼虫)들이 번식하야 월동간은 근부의피하(皮下)로들어가 나무의 양분을 흡수한때문에 벌서말라죽은나무가 적지안흔터인데 요사히 봄철이 되니까 송충은 다시살지로 기여올라 솔닙을 절식하기 시작한다는데 만일이것을 그대로둔다면 고색창연튼 송악산과 만월대의 송림은 전멸상태에 빠지리라고 모든유지자는 단언하야 우려한바 하로밧비 당국에서는 적당한 구제책(驅除策)이 잇기를 일반은 바란다고한다

學級增設코저 面民大會開催

【密陽】경남밀양군부북면(密陽郡府北面)은 학령아동이 일천칠백명이나되나 동면에는 명색이 공립보통학교하나와 사립학교하나가잇스나 현재부북(府北)공립보통학교는 단지 세학급으로 불과 이백명도 수용할수업서 해마다 아동입학에 정원모집의 몃배식이나 초과되여 대다수의아동이 가히아타 도라서게됨으로 이정경을보다못한 동면면민들은 지난사월일 동교계획식이 끗나자 오후한시부터 동교내에모혀 압흐로 삼학급증가긔성을 결의하고 즉석에서 부북공립보통학교 교사증축긔성회(校舍增築期成會)를조직하야 다음과가티 임원을선정하고 학급증가에 따라오는 교사증축에 필요한 경비판출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하고 각기부서를정한후 동칠시에 폐회하엿다한다

任員

會長申東徹 副會長朴酬業 顧問塚原留吉 荒川二郞 幹事李太仁 黃義淑 常務委員安達洙外三十九人

咸陽幼稚園閉園

【咸陽】함양 유일의 보육긔관인 사립함양유치원(幼稚園)은작년까지 경영난으로 폐문되여시민은 부활을 열망하얏스나 경영자인 함양포교소(佛敎布敎所)에서는 지난이월사일 중지를 결의하고 정식으로 폐원신고를 당국에 제출하야 려사깁흔 동원은 종시 폐쇄되고마럿다

동원은 소화사년(昭和四年) 범송사(梵松寺)경원사(慶源寺)법화사(法華寺)실상사(實相寺)령각사(靈覺寺)룡추사(龍湫寺)등의 륙대사찰의 협의하에 함양포교소 사업으로 경영하게 되엿든것이다 원래 기본재산이업시 각 사찰의 분담으로 경비를 써오든바 사찰측의수입감소로 인하야 동 처음해에 이르러 경영난에빠진것을 시민측유지수명이 궐긔하야 사찰측과 협력하야 일년간경영비를 륙백원으로 정하고 사찰측에서 삼백오십원 시민측에서 이백오십원을 분담하야 계속하게되엿는데 그후 시민측에서는 처음일회만을 지출하고 이년간이나 분담금을 내지안코보니 부득이 작년말일 폐원의비운을 당한것이라한다

回甲宴을廢止 五百圓을寄附

尹應求氏美擧

【下東】김해군 하동면 대감리(金海郡下東面大甘里)에 거주하는 윤응구(尹應求)씨는 금번환갑을 맛게되엿는데 환갑연을폐지하고 지난 삼월삼십일에 현금오백원을 가지고 씨의 장남윤필영(尹弼榮)씨와 한가지로 하동면사무소에 출두하야 자긔와가티 공공사회단체로 전달하여달라는 간곡한 부탁을하고 갓다는데 하동지방에서는 보지못한일이므로 일반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一、洞里內極貧者五十戶에每戶正租二斗式

一、下東公普校學年延長費用에金四百圓

一、下東面烏鵲簡易校金百圓

客路에서彷徨타 身勢悲觀自殺

【鏡城】함경남도 함흥부외서상리(咸興府外西上里八一의二)에 본적을둔 로준혁(盧俊赫)이란약오십세 가량되는 로인이 륙일오후네시반경에 경성교외(鏡城郊外)에잇는 빈도 살장들에서 결항자살을하엿다

급보에 달려온 주재소소장은 김공의(金公義)를 대동하고 신체를 검시하엿는데 주머니속에는 고향에서온 아들의편지가잇섯는데 자살경로를 듯건대 몃해전에 집을떠나각지로 떠돌다가 웅긔(雄基)에서 간신이 로동을하야오는중닥처오는 생활난으로 수일전경성(鏡城)에잇는 친지를 차저왓스나 그이마저 몃해전에 죽엇스므로 로약한몸과 하로의연명이 극난하야 여기저기배회하든 남어지 당입에는 면회계원(面會計員)에게와서 자식한테에 돈을 청구하야달라고하야 편지까지 보내주엇다는데 비관한 아들에게 금전을 청구할 면목도 업고 가도오도 못하는 신세를 비관하야 그만주검으로 청산한 모양이라는데 사체는 면에서림시 매장하리라하며 당일은한식 제사로、소연한 동리에 애소동을 일르켯다고한다

第二回全南移民 無事營口에到着

【營口】제이회 전남이민단(第二回全南移民團)은 지난륙일 새벽에 무사히영구에 도착하엿는데 그들은 지난사일 오후두시에 호남선장성역(湖南線長城驛)을떠나 제삼일만인 지난륙일새벽다섯시에 당지에무사 도착하자 공교히 일긔가조치못하여 비가 몹시나리는 관계로 현장인 영구농촌(營口農村)으로 이송하지못하고 당지민회수산장(當地民會受産場)을 리용하여 하로동안 류숙케한후 지난칠일 아침여섯시에 현장으로 이송할예정이라는데이민호구급 지방별(移民戶口及地方別)은 아래와갓다한다

◇移民戶口及地方別

咸平郡 一〇〇戶 五一人

靈光郡 四〇〇 一九七

合計 五〇〇 二四八

地方人事

▲安藤新吉氏(榮州公普訓導)文殊公普長轉任人事次本社榮州支局來訪

▲松本富太氏(榮州公普訓導)新任人事次同上

都給을口實삼아 十餘職員에退職强要

長江水電試錐係傭員의處事

千餘勞働者注視非難

【長津】장강수전회사사공구시퇴계용원(長江水電會社四工區試錐係傭員)인모씨는 동계계원일동십여명을 종업하는 본회사에서 퇴직하기로 승락서에날인을 밧고 또이승락서에게는 해고치안은 두사람계원에게는 전근을시겟다해서 만흔 노동자간에 비란이 자못적지안하다는데 이제그 자세한 전말을들어보면 전긔회사시퇴계에는 용원두사람과 계원십여명이 시퇴공사를 해오든바 이계원들은 부전강수전때부터 시퇴공부로서 팔구년을 시퇴공사에 종사하여 만흔경험을 가진사람들이라하며 다시 이공사장에와서 도급으로 시퇴공사를 해온다는바 임금은 전긔 용원모씨가 계원십여명의 계장으로서 본회사에서 차저서주고잇든바 전긔 용원은 돌연이 지나간이십오일에 전과 계원일동을 자긔집에 소집시킨후 재래로 시퇴계원일동의 명의로 도급을마터하든 시퇴공사는 본회사로부터 자긔단독명의로하라는 명령이 잇다는구실하에서 계원일동은 본회사에서 퇴직을시기고 그들은 자긔압해서 여전히 일을 해주어달라하며 만약 달은계로 보내달라던지 또봉공하는자잇스면 곳해고를 시길터이나 본회사에 승락한다는 승락서에 날인하라함으로 십여명계원은 엇지되는줄도 몰으고 그만밥기리 떠려지는것을 두려워서 련명날인한사람이십여명이고 두사람의 계원은 날인치안은관계로 그만 다른곳으로 전근시긴것이라는데 수년간을 일반계원의 인장을 마터가지고 임금을착복하던 용인으로서 돌연 전긔와가튼 일을행하게된은 내막에 괴이한 그무어시 잇지안흘가하는 점에서천여명노동자의 시선은 이에집중하고잇는 반면에 만흔의혹과비난이잇다고한다

咸興盤龍山公園 美化工作의繼續

三個所施工豫算通過

【咸興】약진하는함흥!매년함흥으로서 엇지못할 명랑한존재인 반룡산(盤龍山)은 이미 오륙년전부터 십여만원의 경비를던지 공원으로서의 시설에 극력하고 잇든바 금년도에 역시 여러가지 미화작업을 실시하기로되여 그예산안까지도 무사히통과되엿다는데 금년도 회장작업의 중요한것은 다음과갓다

▲하북부에잇는 네전 분묘지에 공비칠만원으로 주택지를설치

▲구화장 장리에 공비이천원을 드려 아동운동장을 조성

▲상각정묘대이에 공비삼천원으로 전망대(展望台)를설치

갸륵한隣人愛

【陝谷】고양군원당면 식사리(高陽郡元堂面食寺里)이백십오번지 최성인(崔成仁)집에서 지난 삼월이십삼일오후열한시쯤 불이 러나드되여 전소를당하고 잇슬곳이업서 거리에방황하는 참상을 본 동리최도봉(崔道鳳)김룡남(金龍男) 차두성(車斗成)씨들의 발긔로주민으로부터동정금이 십륙원오십전을 모아 토담집이나마 건축하게하얏다는바 근래에는 보기드문 인정애라고한다

全北産業獎勵館 七月初頃着工

【全州】전북산품을 장려하고저 산업장려관을 건축계획중이라함은 긔보한바잇섯거니와 그후모든준비가 착착진행중임으로 오는 칠월초순경에 공사는착수하리라하며 건축총공비는 팔만이천원으로 이층연와제에 건평약이백오십여평이나 되리라는데 아래층에는 전조선특산품을 진열하고 웃층은 도회의실(道會議室)로 사용하리라하며 건축장소는 현재 참여관 관사자리로 정하엿고 참여관 관사는 다른곳으로 이전게획중이라고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慶源支局

位置 慶源郡慶源邑內

右任支局長 高■協

支局長 金相■

右依願解任

謹告

大田支局

記者 李昌洽

右依願解任

鐵山支局

寫眞班記者 姜興基

右新任

泰川支局

記者 徐鵬三

右新任

殷栗支局

記者 金相謙

右新任

通川支局

歙谷分局長 金汝燮

右新任

揷橋分局

記者 成夏憲

右新任

鐵原支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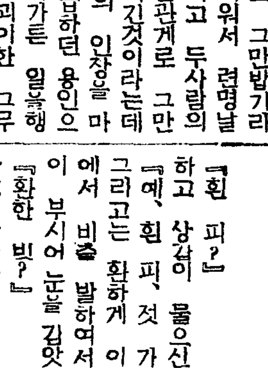
記者 盧良根

右新任

異次頓의死 【134】

李光洙 作

金奎澤 畵



『휜 피?』

하고 상감이 물으신다。

『예、휜 피、젓 가튼 휜 피。

그리고는 환하게 이차돈의 몸에서 빗출 발하여서 모도 눈이 부시어 눈을 감앗다 하오。』

『환한 빗?』

하고 상감은 또 물으신다。

『예 그리고는 모인 사람들의 귀에 이상한 우렁찬 소리가들려서 모도 무서워서 땅에 업드렷다 하오』

『이상한 우렁찬 소리?』

하고 임금은 또 물으신다。

『예、마치 천동하는 소리。 그래서 백성들은 올흔 사람을죽엿다고、선마로와 알공을 죽여라、하고 몰려갓소。』

『군사들은?』

하고 상감이 물으신다。

『예、백성들도、군사들도、』

이때에 선마로 황황하게 들어와서 업더리고 공목과 알공은 계하에 읍하고 선다。

『선마로、웬 일인고?』

하고 임금이 선마로를 보고 물으신다。

『상감마마。 이몸은 천벌을 바닷소』

하고 이마를 조아린다。

『어떤 천벌을 바닷는고?』

하고 상감은 선마로와 계하에 선 공목과 알공을 보신다。

『지금 군사들과 백성들이 이몸의집을 치러갓소。 이몸은 다시는 세상에 나가지못하겟소。』

『목숨을 일는 사람도 잇거든 집쯤 일는것을。 집도 그리 아까우냐』

하고 상감의 눈과 입에는 비웃음이 돈다。

『상감마마。 이몸의 어리석음도 이제 눈을 떳소。 죄를 생각하오면 백번 죽어도 아깝지아니한 이몸 넓으신 은혜를 입삽고도 은혜인줄도 모르던이몸 이제 더 살기를 원함이 아니오나 상감마마께오서 용서한다、하시는 한말슴을 듯자오라고 여긔 업드렷소』

하는 선마로의 말은 심히 비창하엿다。

『용서 저 공목과 알공도 용서를 바드려 온것이냥。』

하고 알공과 공목이 이마가 땅에 닷도록 허리를수업시굽힌다

상감은 압헤 업더린 선마로와 계하에 허리를굽히고 섯는 공목과 알공을、분함을 이기지 못하는 눈으로 서너번 노려보시더니

『오。 이차돈만 죽여버리면 만사가 너희 뜻대로되어서 부귀와 권세를 마음대로 누릴줄만 알앗더니、그것도 한 바탕。 눈한번 깜짝할 사이엿공。 이제는 그리도 미워하던 이몸의 압헤와서 용서해달라고。 흥。 아직도 하늘이 늙으시지를 아니하여서 복선화음의 이치가 뒤집히지아니한줄을 인제는 깨달앗느냐。 신라에 오직 하나만남은 착한 사람 이차돈을 물러부터서 죽이고나서야 인제는 깨달앗느냐。』

『황송하오。 이제야 욕심의 두터운 꺼풀로 덥혓던 눈이 떠진것 갓소。』

하고 선마로는 떨리는음성으로

『이제야 임금도 보이고 한피한 뼈를 난혼형님도 보이고、올흔것도、그른것도 어렴풋이보이게된것 갓소』

하고 운다。

이 때에 거칠마로가 숨이차서 들어온다。

『상감마마 거칠마로 아뢰온』

하고 선마로보다 서너걸음 뒤에 업더린다。

『오 거칠마로』

하고 상감은 눈을 크게뜨시며

『그래 네가 그러케도 미워하던 이차돈을 죽엿스니 이제속이 시언하냐』

하고 이를 가신다。

『황송하오』

하고 거칠마로는 한번 이마를 조아리고 눈을 들어 상감을우럴어보며、

『상감마마。 황송하옹 백번 죽사와도 아깝지아니하온 죄인거칠마로』

하고는 목소리가 떨린다。

經濟解說

"低金利結果" 軍需工業擴大而已

申泰翊

低金利의深化를따라서 一般國民經濟가 影響케되는結果가 생길것이라고한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債務가 잇는사람으로서는 利子의負擔이 적게도는마큼 有利한點이다 그反面에 金融資本 即金利에依하야 生活을 하는層의사람들은 不利한立場에 잇게된다는것을 反證하는말이다 그러나 이로써 一般大衆生活에 好影響이 밋칠것으로 簡單히 보기어려운 複雜한事情이 잇슴을 看過할수업다。

×

오늘에잇서 低金利의徹底를 企圖치안흘수업게 되는理由中 가장 主因은 公債增發의運行을 圓滑케 하랴는데잇다 이公債增發의 運行上圓滑은 곳赤字財政膨脹을 意味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어에잇서 資金의 積極을 생각케되고 딸하서物價의昻騰은 必然의結果로되고마다 그러면 이低金利의 深化를作하는 物價昻騰은 經濟界에 어떠한影響을 밋치게할것인가 이點을 明白히 하면 低金利政策으로서 産業界의繁榮을 圖한다고 한點으로는 期待를 가질는지 모르나 그러나 物價昻騰으로因한 一般大衆生活에 주는威脅이 相當할것으로 보는 不安이 안흘수업다 即 첫재로 消費大衆은 物價昻騰으로 不利한立場에 빠지게되는바 이에對하야는 生活費、勞働者의 賃金이 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物價의昻騰을 伴하야 俸給、勞賃의 노파지는實例가 過去에 비하여서 겨우 少數에있서는마큼 自然的 減俸、勞賃低下의 結果를 나타날 不安을 갓게한다。

×

물재로는 金利에依한 生活者即 金融資本側은 低金利의深化로 不利케된다는 反面에는 産業資本側의 有利化를 意味하는 結果가 되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低金利의 深化로 因하야 돈을 가지고 잇슴을 過에는 그돈으로부터 생기는 利潤의 率이 前보다 적게되다 그러나 産業을 資本으로하는사람은 이産業에드는 資金을 融通함에잇서서 그利率을 從前보다 적게 내게되는 利益이 잇슬뿐만아니라 物價의昻騰으로 産業利潤이 從來보다 만케되는結果가 생긴다 그럼으로 低金利、物價昻騰의時代에는 所謂돈보다도 物件이란말이 流行되는것과 가티 돈을 가지고 잇는것보다도 産業資本에 有利하다고 하는 理由가 여기에잇다 더구나 最近馬場藏相의新財政政策中 그第一着手로 低金利政策의 積極化를 보게되는때인만큼 一層 本格的으로 産業資本의 優勢를 보게될 수도 잇다。

×

그러데 目下 低金利政策의 積極化가 進行의途程에 잇서 이미 日銀利下를 斷行하엿고 또五分利公債를 四分利公債로 借換할것을 決定하엿스며 그뿐아니라 將次預金利下、四分利公債를 三分利公債로 借換하라는等 그의工作이 相當히 남어잇슴으로 지금에 低金利政策에 對한今後의動向을 預卜할수는 업스나 그러나 오늘에는 公債金利의直接的動機인 公債增發은 主로 軍備擴大에 需用되는 돈마큼 이低金利에 依하야 軍需工業의 生産力을 擴大케될것으로 볼수잇다 그러나 一般産業部門은 昭和七年以來相當히擴大되야 이미 過剩狀態에빠저잇슴으로 軍需工業으로因한間接的影響가 늘게될는지 모르나 低金利를 直接的으로 利用하야 再生産 擴張의 擴大는 오늘에 잇서 期待를 갓기가 어려울것 가티도 보힌다 그럼으로 從來는 産業資本에잇서 低金利가 相當히 好轉的引導의 作用을 하여왓지만 이번에잇서는 或은 그와 反對로 産業資本에 對한 阻害의結果가 될는지도 모른다는 一部의見解가 잇다。

硫安旣契約品 畢竟減價決定

四圓九十錢으로減價引受後 四圓五十錢에 買戾

窒素販賣會社에서는 暴落後의硫安受渡問題對策에對하야 岡崎專務가大阪에가서 日窒本社와協議한結果

一、硫安一叺四圓九十錢以上의契約品에對하야서는 全部一叺四圓九十錢以下로減價

二、四月八日以降他社品을 取扱치안는 特約店에 對하야서는 四月八日現在의 三月限以降의 未取引品約三萬五千噸은 特約店에서 一旦契約價로서 引取後特約店의 希望에依하야 會社에一叺四圓五十錢으로買戾할 但價差(一叺四十錢)은 即時現金으로支拂할

以上과가티決定하고 八月各特約店에對하야 通牒을發하얏다 新規賣出은 이 對策處置後의 形勢와市況의 時勢를 看取한後에 考慮키로되엿다 從하야 會社側에서 四圓五十錢以下의 것은 買戾하기로 되엿다에市況은 結局四圓五十錢以上으로安定되리라한다

▲岡崎專務談＝硫安市況이 環境에 支配되여 惡化되엿때문에 會社로서는 特約店側의希望도 聽取한後日窒本部와 協議한結果四圓九十錢以上의것은 四圓九十錢으로 減價하고 旣約品中三月限以後의 未引取品은 特約店의 希望에 依하야 四圓五十錢으로 會社에서 買戾키로되엿다 要컨대 會社로서는 市勢가 下落하엿다고 契約의破棄를 認하던지 解合하던지할은 將來에 惡例를남길것임으로 一應契約은 全部履行하야주고 引取品의處置에 困難한者에게는 布望에依하야 四圓五十錢으로 買戾하게된 것이다。이에依하야 日前春肥實需期를압두고잇는마큼 相當히 好轉되어 活氣를期하리라고 信한다。

郵貯도不遠 若干利下?

【東京電話同盟】馬場財政의 低金利方針에 從하야 郵便貯金利率의 引下問題가 喧傳되는데 右에關하야 遞信當局은 郵便貯金은 本來上 庶民階級의 零細한 金錢을保管하고 一般의 貯蓄心을喚起하는것임으로 이點을 第一次에 置하고 一般金融情勢의 追從과 政治的考慮는 第二次的이라하야 外部情勢에 對한盲從的態度를 嚴戒하고잇스나 現在郵便貯金은 三十億의 巨額에達하고 金融界에及하는 影響이相當히 重大함을 否定할수업고 또 貯蓄銀行과의 均衡도 無視할수업슴으로 一般低金利情勢의 形勢如何에 依하야서는 結局郵便貯金도 近間若干利下를 行할것이라고 보인다한다

朝鮮內利下時期

▲朝銀은十五日

朝銀의公定割引利率引下는 十五日頃實施할터이엇스나 諸般事情으로 十五日부터 實施할模樣 利下幅은 一厘引下키로 內定하얏다

預金利下五月

朝鮮內의銀行預金利下는 目下의 催한 時期가 不明瞭하나 大體 今月末이나 來月에 入하야 具體化되리라고 觀測된다 即預金利下에 依하야 資金코스트引下를 圖할 必要는 痛感하나 이에依한 預金逃避를 두려워하고 特히 乙種銀行側은 信託及金融組合 利下에對한 態度를 모름으로 日本內地銀行이 引下하드래도 單獨히 引下할수 는업는모양이다 從하야 朝鮮內의 預金利下는 日本內地와가티 早急히 實現되지 안흘 形勢이다

貯銀도同時利下

貯銀은 從來普通銀行과 別個로 預金利率의 改訂을行하야왓스나 普通銀行에서는 預金利下에際하야 同一步調로서 하야달라는 希望이잇슴으로 結局今回의 預金利下는 組合銀行과 同時에利下를 行할것으로보인다

實行金利 이미低下

朝銀의 公定割引利率은 結局一厘引下로 商業手形의 再割引日步는 一錢二厘以上이나 實行金利는 이미 前回의 昭和八年七月利下의 때보다도 三、四厘나低下되어 事實上公定利率의引下는 이實行金利의 低下를 形式으로 表現한다는 意味에 止하는것이라는데 促하야 公定利率引下에 依하야 實行金利가更히 低下할것은업슬것이오 再割引을 受하고 銀行의 一般貸出金利도 이以上 加速度的의 低下는 업스리라한다

定期預金利下

乙銀은不應態度

朝鮮銀行利下 實施後의 當地銀行의 預金利下問題는 九日의 木曜會에서 座談的으로 議題에 올느게되엇다 그러나 甲銀은 何如間 乙銀側에서는 特當通知、當座等의 日步預金金利는 別問題로하고 定期預金(現在年四分五厘)의 利下에 對하야는 現在의 信託受託者의 配當率(現在年五分)과의 利差縮少가 具體化치 안흐면 斷行할수업는 모양이다 그러나 日本內地支店銀行의 特殊關係도 잇고 旱晩實現케될 것으로 그實施는 五月로 觀測되다고한다

朝鮮織物協會 擴大强化決定

朝鮮內織維工業에 伴하야 統制中樞機關의 設置、强化는 業界의 懸案으로서 特히 斯業統制團體가 右를 急務로하더바 朝鮮內織物關係로서 組織된 朝鮮織物協會에서는 七日午後中央試驗所에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右問題에 就하야 協議한 結果 織物協會를 將來朝鮮內斯業의 中樞機關이 되게할 方針을 決定하엿다 即 現在의 構業協會의 定款을 變更하야 協會員에 未加入한 大紡績工場、各新設工場을 包括하고 現在 人絹部 染色部等의 部制를 强化하야 各部門別로 部會를 設하고 各部에서 統制、協定等을 行하자는것이다 同協會에는 總督府殖産局에서도 關係官이 出席하엿는데 更히 織物協會에서는 再協議할 豫定이라한다

對日本內地貿易 入超로逆轉

米移出不振이原因

第一四半期(一—三月)의對日本內地貿易은 例年米穀의 移出最盛期의 關係로 出超를 恒例로하얏슴에 不拘코 今年은 反對로 二百五十二萬三千圓의入超를 示하얏다 即一月以降累計額前年對照는 如左하다(單位千圓)

	一月以降	前年同期比較增
移出	一三三、五一三	三、四八一
移入	一三六、〇三六	一二、七八四
計	二六九、五五〇	一九、三〇一
入超	二、五二三	

五分利債借換 各方面好評

三分五厘債消化無慮

【東京電話同盟】日銀利下에이어서 政府는 突然五分利債의 借換을 斷行하고低金利促進에 拍車를 加하얏는데 金融界에서는 借換時期의 切迫을 말하고 七日과 如한 四分利債의 市勢를 下廻하는奇現象을 呈하얏는데 政府의 突然的 借換發表는 金融界의 適從할點을 明示한것으로 政府의處置를 賞揚하고잇다 銀行方面은 借換에 依하야 相當한 程度의 損失을 蒙하얏스나 政府가斷然低金利促進策을 取하는以上이에 追從할것이 至當한것으로 此際多少의 犧牲을 하드래도 不得已하다는 意向을가지고잇다 今次의 借換發行에 依하야 日銀의公債賣止도 不遠間解除될것은 勿論이오 新公債는 三分五分라 하나 그利廻는 三分七厘로 預金利下를 行하면 相當한 採算을 엇을것으로 이것의 消化는 完全히되리라고보고잇다한다

五分利國債內容

【東京電話電通】今回低利借換을 決定한 昭和十一年度와 昭和十二年度中에 期限到來인 五分利國庫債券의 銘柄別內容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二十三回 二十六回 二十八回	
二十七回	四四、七二九
二十九回	八九、八四八
三十回	六四、九五七
三十二回	一四、九〇七
三十四回	九九、三六〇
	五九、三六〇

三分五厘 當分間不變

馬場藏相談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七日夜私邸에서 五分利債의 低利借替問題及郵便貯金利下問題에對하야 如左히말하얏다

五分利公債의 低利借換을 發表한 理由는 四分利公債賣止를 事情으로不安케하야 何時든지도 安定치안켓슴으로 一般의 常識으로된 五分公債의 低利借換을 斷行하야 그條件을 明示함에 依하야 低金利의 一標識과 市勢의 安定을 指導的으로 示코저하는 意向에서 나온 것이다 他方七日六大銀行代表者가 預金利子引下에 關하야 協議하얏는데 政府가 電光石火的으로 政府의 方針을 示하야 依據할바를알린點에잇다 公債의 發行證券利率三分五厘는 當分變치안을方針으로 債還期限은 延長할지모르겟다

臺灣米移出量

【東京電話同盟】拓務省發表에依하면 臺灣의移出米數量은 다음과갓다 (以下單位石△減)

	昭和十一年	前年比較增
三月下旬	八六、八〇三	三三、三六八
▲其中日本內地向		
蓬萊種	七七、五五六	一〇、一〇七
在來種	一〇、一四〇	一〇、〇〇八
小計	八七、六九〇	一〇、一一五
朝鮮向	一、一五二	一、一五二
三月中	三五五、六〇八	八六、四一三
昨年十一月上旬以後累計	一、六五五、二一四	△一六九、七七七

京城金價續落

京城市中金價는 八日도 또떠러저서 賣一匁十二圓丁으로 五錢低、買十一圓八十錢으로 十錢低이엇다

米日爲替弱保

七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八弗九十二仙으로 二仙低 買二十八弗九十四仙으로保勢

肥料資金이 農改低資의九割

【農林局調查】昭和十年農事改良低利資金(九年九月—十年八月)의 貸付實績은 二千九十四萬七千二十六圓으로 資金配定額 八百九十一萬四千四百十四圓의 十一割七厘이오 前年度의貸付總額一千四百九十萬四千百十四圓에 比하면 六百四萬三千九十二圓 四割五厘의 激增인바 貸出別로보면

	金額	前年比增割合
東拓	六、四四四、三二八	五四%
殖銀	六、五五九、六三九	三六、三
金組	七、九四三、〇五九	四〇、〇

이오 資金別로보면 肥料資金의 激增으로 資金額의 九割一分九厘인 一千九百二十四萬五百四十圓을 占하야 前年에對하야 五割一分九厘의 增이오 肥料外資金은 百七十萬六千六百六十二圓으로 總額의八分一厘로 前年에 比하야 二割三分八厘를 減하얏다 利用時期別로보면 九割五分六厘가春期資金인바 그道別은 如左하다

京畿	二、七〇七	忠北	八六六
忠南	一、八七七	全北	三、一二三
全南	三、三二一	慶北	一、七〇六
慶南	一、四九九	黃海	三、三三七
平南	一、一〇五	平北	一、五〇五
江原	七六五	咸南	八〇〇
咸北	三三	計	二〇、九〇七

預金利下決定

◇實施는十日부터

【東京電話電通】日銀利下에 拍車를加하야 一般市中銀行의預金利下는 急激히 實現될形勢임으로 森東京手形交換所理事長은 七日午前中에 爲先電話로서 各幹事銀行의 意向을 打診하는 一方大阪으로부터 東京中에온 入代(住友)中根(三和)兩氏와도 引下에關하야 意見을交換하고 關西方面에도 通諜하야 來九日午前丸之內銀行集會所에서 緊急重役會를 招集하고 利下率과 實施期日에關하야 協議決定한後 同日午後直時 臨時總會를開催하고 正式附議決定하야 來十日을 期하야 如左히 懸案인 甲、乙兩種預金利率를 甲種定期는 四厘引下인 三分二厘、乙種定期도 四厘低下인 三分六厘로 各各低下키로 決定하얏다

▲甲種銀行

定期年利 三分二厘(四厘引下)
當座 日步一厘(一厘引下)
特別當座 日步五厘(一厘引下)
通知 日步六厘(一厘引下)
別段其他預金 日步六厘(一厘引下)

▲乙種銀行

定期年利 三分六厘(四厘引下)
當座 日步二厘(一厘引下)
特別當座 日步六厘(一厘引下)
通知 日步七厘(一厘引下)
別段其他預金 日步七厘(一厘引下)

市場金利

❶用語說明

市場金利가 몃가지나 잇는가하면 大體로 普通의貸出利子와 割貸利子의 두가지가 잇다 이에잇서 普通으로 貸出利率이라고 말하는것은 銀行에서 손님에對한 貸出金利를 가르켜서 하는말이며 割貸利率은 普通銀行、特別銀行、手形割引銀行 證券銀行等 銀行과 銀行間에 短期取引을 함에對한 金利를 말한것이다

▲貸出利子＝普通銀行의 貸出에는 證券貸付、手形貸付、割引手形、當座貸越等 여러가지의種類가 잇는데 此等種類가 달홈에따러서 利率도 各各달호다 貸付日步中에는 證券貸付에對한것과 手形貸付에 對한것의二種이 包含되어잇다 證券貸付는 土地家屋이나 工場財團이나 鐵道軌道財團等을 擔保로한것이 잇는데 期限이 六個月乃至 一年二年의 長期에 이르고 또多數는 金融逼迫의때에 取引되는것으로 大槪 利率이 놉다 手形貸付도 實質은 貸付金인데 오즉 證書의代身으로 手形을 使用하는것이며 따러서 形式은手形의割引이 됨으로 이形式에 重하야보면 割引手形과 區別하기가 어려우나 取引의實質에는 밝히 區別되어잇다 割引手形의境遇는 裏書에 依하야讓受되는것으로 手形의賣買라고말할수가잇다 銀行에 割引을依賴하는사람은 手形의支拂引受人과는 全然 別個의사람이다 그러나 手形貸付의境遇에는 直接으로 手形을 借用證書로 내노는것인때문에 手形의支拂引受人과 割引依賴人이 同一人이다 그럼으로 手形貸付에 使用되는手形은 爲替手形에依할境遇도잇고 約束手形에依할境遇도 잇스나 어떠튼지手形임으로 그期限은 六十日또는 九十日을 普通으로한다 그러나 期限에잇서는 貸付日임으로 手形期限마다 다시 借入을繼續하는사람이 만타 信用貸도잇지만 多數는 擔保付로 公社債 株式等의 有價證券으로부터 商品에잇서도 原料、製品業、擔保의種類가 廣範圍로되어잇다 一時的金融을하기爲한手形인데 利率은 證書貸付의 그것에 比較하야 大槪 低率이다 그러나 擔保의種類에依하야 顯著히 달호고 公債擔保의 貸付等은 그利率이매우低率이다 (此項繼續)

今日財界 (八日)

[illegible]

經濟界消息

[illegible]

經濟寸鐵

[illegible]

商況 (七日)

[illegible]

株式 續騰後에 反落

前場續騰

昨後場一高이어 三分五厘債發行決定으로 株式에 遊資務致를 期待코 買氣繼續되여 東新百二十七圓九十錢 日産六十六圓五十錢 大新七十三圓十錢 鐘新百四十七圓六十錢 日鑛九十五圓丁 日魯六十三圓六十錢에 一齊高의好勢이고 朝新二十六圓七十錢 拓新十八圓四十錢이이섯다

後場反落

後場은 低寄後阪地反落에 伴하야 結局東新百二十六圓十錢、日産六十四圓四十錢、鐘新百四十六圓八十錢、大新七十二圓五十錢에 一齊反落大引

東新은 戾新價

日銀利下影響이 積極的으로는 크게好感을 주지못하나 그래도 東新은 압장서서 漸騰步調를示하야 今前場公債三分五厘債發行도잇서 東京東新은 去月三十日의戾價百二十七圓七十錢을 十錢上廻하야 百二十七圓八十錢의戾新價이고 當地東新도 七圓九十錢의高價가잇섯다

이미先行過剩되었다는感이 不無함으로 低金利를가장 敏感히 好感하야우선 十圓戾를 示現코 第二段 反撥이 잇스리라고 期待하는便도 업지 안흔데 果然順由한上向이 繼續될는지? 東京서는 底價를 買하는 齋藤보다 山種의買思惑이 優勢를傳하는만큼 或은東新百三十圓臺回復이 잇슬지도모르나 問題는그뒤의일로본는지 金利下를 好材料出盡으로보는賣物이 有力해지지안흘까?

過剩遊資와株式

公債賣却中止、四分利債三分五厘債로 借換等馬場政財政이 具體的工作이되어가는터이나 增稅와 統制經濟의 範圍와 程度로아즉도 未知數에 屬한까닭에 具現되는低金利策에 도全幅的歡迎市場을나타내지못하고잇다。三分五厘債보다 銀行預金보다 有利한株式으로 過剩遊資가 밀녀올것도 想像되지안흘이 아니다 이것을時期가언제일고?

大底入의與否

二、二六事件以來 主要諸株의

期米 少幅揉合 細刻

前場反落

昨後場阪地三十二圓十二錢止와共히 二十九圓八十六錢에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〇一錢인 十二丁反落을據하고 二十九圓八十錢인 六丁低로場을始한後 阪地〇五錢으로 小戾하엿다가結局〇一錢으로 反押止場함을伴하야 二節八十六錢의 皮肉的突高로 畢竟八十一錢으로 八十二厘에場을 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 二十九圓八十二錢에寄付後 八十三錢間細刻이다가 六節無賣買로 七十九錢에止場하다

一高後에反落

買上行動一巡

一般이忘却하고잇든 政府米第三次買上을 突然發表하자 軟派의 虎荒的物과 硬派의 得意買物이 現出하야 因而强調를 持續하더니 買上決定日인 今期에入하야 東阪共히 十餘丁의反落을 告하고 當地亦軟態에 傾하는光景이다 今回買上에 對한 行動은 中限四十餘丁의 反撥과新甫

市場六感

株 利下에가장 好感바더 東新은戾新價로漸騰▲이로써 또 戾一巡이나 十圓戾示이냐?▲ 低金利로 下値에는 制限이생기게되것이 注目은되나 無碍上進은 倘疑問▲또는觀花時節이오 말성거리 特別議會가압헤 걸처잇스니 熱내서사기는躊躇▲循環低가一巡된後 利下로反戾까지되엇스니 이로써한市勢 지낸세음이아닐가?▲그러다면 다시春眠曲을 올리게되나 내친거름에 東新이百三十圓소리가나올지모르나 그는삼곳이

米 昨日東阪兩市의 三十二圓十錢臺의 突高는 何因이며今朝의 突落은 또한무슨原因?아마도 仕手關係인모양▲萬年弱氣의 別名을갓는 東京山種一派는 三十二圓臺를 唯一한賣場으로하야 出動하는모양이며 反面의 阪地潮先은猛烈히買進한다고 ▲그外馬越老는 시칩이를뚝떼고잇다가 高價이니 한번팔아볼가하고 또 出動을하는모양이오 一時弱氣先鋒이라할만하든 田中貞一派는 當分觀望하는狀態▲某消息通에依한 田中貞의言明을들으면 傍觀하다가 硬派에게加擔하기 十常八九일듯하다 그러나 그 實際行動을 보아야할일▲仕手觀을 떠나서 米의 實勢觀에서 보면 果然潮先一派의 觀測과 如히 不遠한將來에 爆彈이터질듯도하나 時期가時期이라 그러케 容易하지도 못할듯한걸▲買方의唯一한後援인 政府買上도 終幕을告하게되고 또春暖期의 關係로 持米側의가슴도 편치는 못할모양이니 반드시 前途高만보고할수업는걸

아닐뜻 ▲增稅案의 輪廓과統制經濟의 範圍가 判明되기를 기대림만不如

東京國債沸騰

【東京電話電通】低金利誘致의繼續的買人氣로 佛貨一圓九十錢上放을 비롯하야 米貨의 七圓沸騰 內債도一圓內外奔騰이엿다

甲五分利	一〇四、〇〇	三、〇〇
一回四分利	九三、〇〇	二、〇〇
二回四分利	九二、〇〇	四、〇〇
佛貨四分利	九四、〇〇	五、〇〇

實物前場取引

▲新義州電氣新 二〇、五〇 (取引高百枚)

▲大同電力新 二〇、五〇 ▲日鋼아루미 三〇、三〇 ▲寶水 二二、四〇 ▲石川島新 三三、二〇 ▲日本製糖 六三、五〇 ▲電化新 三〇、五〇 ▲帝麻新 八〇、〇〇

降雨와 軟氣分

時期尙早나마

丙年이라면 農學上으로나 哲學的으로나 證明할수업는 何等의 根據와 條件이 업서시 米食國人으로는大槪凶作이 아니면 어떠한큰事變이 잇슬것을 憂慮하여오는바이다 이와가티 迷信化하는 巷間의 豫測說을 中間에두고본다면 過般二、二六事件은 政治的으로의 未曾有한 一大事變이라할수잇스며 又는天候에잇서서는 昨年秋季以後로本年三月에入하기까지 一滴의 降雨와 一片의 雪花가업시 旱魃을 繼續한데다가 氣候조차 稀有의 酷寒으로 麥作의 被害가 不少하엿슴으로 前記巷間의 豫言을 全혀 度外視한다고할수업는만큼 本年丙子年의 凶作을 念慮하여왓다 그러나 四月에入하야 數次降雨를보게되엿스며 昨今의 天候가 繼續陰雲하야 又復降雨를 催할을 보면 落種의 用水不足의 歎은 掃되엿다 아즉天災期가아니며 또 農繁期에 入하기前임으로 벌서 降雨의 有無를 그다지 注目할時期는 아니나 원악旱魃을 오래동안 繼續한 後임으로 昨今의 降雨에 얼마큼 買氣가 萎縮되엿이업지아니하다

十餘丁의 反落을 告하기 가히 어느程度까지 反落을 始하고 잇슴으로 買上完了와 共히 期하고 惡材料의 强弱觀으로 買氣衰에 그餘地가 얼마되지안흘것을 豫此에서 高價를 示하다 할지라도 市勢는 阪地三十二圓臺의 突破와 當地三十圓大關門의 肉迫으로 알수잇슨일이다 그러고 昨今의 高臺的期待하는 許多가 하지만 昨年의 前轍으로 써몬터 의 實況이 잇슬 이것을 入이 잇기 勘案하야 人氣 然期가 到來하는 此際에 하야 一般이 더 促進하는 比 이 高騰을 다는 바이나 農家 로 大概 貯藏하고 잇는 一新의 高價를 招出할 것 구나 更一新의 前途는 누 아니하다 價米價의 前途를 이어 지 反高로서 既히 一進一退의 後二十餘丁 三十圓上下로 (中略)

朝取期米取引內容

[illegible]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昨日買上成績 良好를 떠듬이 地場의 熱心買로 高價示現하엿스나 今日은 發表待로 傍觀되고 朝鮮産地 不安의 結果에 高價에 抑壓되엇다 今市場의 主要賣買는 如左하다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各地正米

東城不變

買上決定日로 取引이 不振이오 市況은 閑散裡에 保合인 丸仁三等二十九圓〇五錢 四等二十八圓七十五錢 一等白米 二十一圓五十錢

仁川不變

清算의 不勢로 市場實物薄의 傍觀狀態이나 市況이 保合인 下支되어 丸仁三等二十九圓〇五錢 四等二十八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釜山引締

實物으로 市況 不進氣味이데다가 今朝는 天候不良으로 新潮廻着이 杜絶되어 唱은十錢硬化이나 商談이 不捗하야 當用小口買가 散見되는 程度에不過하고 取引은 僅히四九七 叺이엇다 角ㄱ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八十五錢 一等白米 十二圓三十二錢

大邱引締

定期伸悩를보고 買氣이 全無이오 氣配十錢引締 인角ㄱ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 二十八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少弱

廻着十三輛 低位觀으로 新規賣物이 出現하야 五錢低唱이나 買上結果待로 依然 取引이不振하야 菱ㄱ三等 二十九圓二十五錢 四等 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八十錢

木浦保合

買上數量 決定當日로 反方共히 積極性이 乏하고 市況은閑散이나마 底意는比較的强한 九ㅎ三等 二十九圓三十錢 四等 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 十三圓丁

株式 朝取短期 (八日)

[illegible]

金融 (八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illegible]

米穀 (八日)

◆對外爲替◆ ◆金買入價◆ ◆京城市中金銀價◆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illegible]

商品 (八日)

◆京城絲糸布市勢◆ ◆京城綿布◆ ◆綿油冲價◆ ◆綿搾粕冲價◆ ◆大阪毛期麥◆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仁川 米期 福 吉村取引店

朝取取引店 株式 玉 期米 柳來恒商店 電話本店三〇九九 營業案內進呈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期米 (八日)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商品 (八日)

◆大阪綿糸◆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各地正租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朝取代引日步◆

[illegible]